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Transition and Solidarity for sustainable life on earth

기획 및 운영

초대의 글

성과 정리

전체 아트워크 및 홍보

세부 프로그램

1. 특별행사

서밋열기(개막) - 개막 강연

서밋닫기(폐막) - 쇼하자

서밋 나눔부엌

서밋 하자투어

서밋 밑줄긋기 모임 및 밑줄긋기 책장

2. 포럼 & 워크숍

[청소년 진로 섹션]

오픈토크 - 교육은 모든 사람의 일 : 자신의 열정으로, 지역사회를 배움터로

진로교육포럼 - 학교 안팎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

진로교육워크숍 1 - 일일직업체험을 통한 발상전환

진로교육워크숍 2 - 토요진로학교사례공유 : 직종선택에서 삶의 태도로

라이프디자인캠프 쇼케이스 - 전환을 위한 움직임

[생태적 교육 섹션]

오픈토크 - 산업시대의 교육에서 퍼머컬처(perma-culture) 교육으로

청소년 공개대담 with 수잔 블룸 - 지속가능한 배움과 삶

이 시대 교육포럼 1 -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의 교육

이 시대 교육포럼 2 - 청소년이 말하는 '에너지와 나의 성장 이야기'

[사회적 경제 섹션]

마을장터 - 달시장

손맛나는 워크숍컬렉션 with 방물단

적정기술 워크숍 - 햇빛건조기 만들기

공정여행토크 -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안내서 with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

멘붕방지협약(가칭) 네트워킹 파티 with 사회적기업 유자살롱

토론연극 - 우리반 선옥이 with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

서밋 밑줄긋기 영상 - 지속가능한 삶은 00이다 with 사회적기업 영화제작소 눈



초대의 글

전환과 연대의 의미를 아는 모든 분들께

글 / 조한혜정(조한, 하자센터장)

간단한 역사

1999년에 문을 연 하자센터(공식명: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초기부터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창의적 공공지대(creative commons)’ 로 출발했습니다. 대량생산 패러다임의 입시 위주 교육에 반발하면서 제도권 학교를 탈출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그들이 마음 놓고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문화작업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자기 주도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마치 창의성이 입시교육에서처럼 주입하면 되는 것, 또는 훈련을 시키면 되는 어떤 능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을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준다면 대대적 홍보를 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낼 거대 기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창의성이란 것이 인위적으로 통제된 공간에서 키워지기는 힘든 것일텐데 이런 문제적 접근을 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자센터에서는 창의서밋을 열기로 했습니다. 2008년 예비 서밋의 주제를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잡은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창의성은 꿈이고 이야기이다, 창의성은 문제발견과 해결의 능력이다, 창의성이란 만남이고 헌신이다, 창의성이란 신뢰의 관계이며 헌신이다” 라는 네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을 비롯해, 홍콩현대문화원 대표 대니 웅(Danny Yung)과 홍콩창의성학교 설립자 애다 웅(Ada Wong), 모스크바 국제영화학교 설립자 알라 스테파노바(Stepanova Alla)를 비롯 홍콩, 러시아, 한국의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다양한 워크숍과 프로그램을 통해, 삶에서 키워진 각자의 창의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09년 첫 번째 서밋은, 대대적인 초대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창의성, 위기의 삶과 만나다”라는 화두로 창의성은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친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키워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근대적 학교들은 창의성에 적대적”이라는 주제의 연설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OECD CERI(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 Innovation)의 책임연구원 데이비드 이스탄스(David Istance), 홍콩대학 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데스몬드 호이(Desmond Hui), 홍콩창의성학교의 디렉터 메이 평(May Fung), 일리노이 대학의 낸시 에이벨만(Nancy Abelmann), 모스크바 국제영화학교의 교사 올가 페그라다이안(Olga Fagradian), 핀란드 옴니아직업학교의 교장 유하-페카 사리넨(Juha-Pekka Saarinen), 네팔의 사회적기업 3Sisters Adventure Trekking의 비자야 체트리(Bijaya Chhetri)와 러키 체트리(Lucky Chhetri), 일본의 사회적기업 Center for Active Community의 대표 아쓰코 핫토리(Atsuko Hattori), 교토 램의 대표 오카베 도모히코(Okabe Tomohiko), 소다테아게넷의 쿠도 케이(Kudo Kei), 아소봇의 이토 다케시(Ito Takeshi), ISL의 디렉터 이토 켄(Ito Ken) 등 국내외에서 창의적인 배움터와 일터를 만들어내고 마을을 풍요롭게 해내는 교사와 사회적 기업가와 연구자들이 대거 모여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갔습니다.

2010년 두 번째 서밋은 ‘지속가능한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협력과 호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나흘간의 축제의 장을 펼쳤습니다. 덴마크 카오스필로츠 설립자 우페 엘백 (Uffe Fibæk), 네덜란드 노매즈 교장 피터 스피ندر (Pieter Spinder), 캐나다의 대안학교 ‘경계없는 학교’를 설립한 크리스 강 (Chris Kang), 일본의 생태평화 운동가 마사키 다카시 (Takashi Masaki), 일본의 카페슬로 설립자 요시오카 아츠시(Atsushi Yoshioka) 등, 문명의 전환기에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삶터와 일터를 고민하는 분들을 초대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기획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말하는 창의성은 지속가능하게 재생산될 성격의 것이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보아도 이 점은 분명해집니다. 1990년대 이후 청년 인터넷 벤처 붐이 일면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대거 활약을 해왔지만, 그 성과는 미비합니다. 이어서 디자인 붐이 일어서 또 한차례 ‘창의’라는 단어가 ‘디자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는 주술적(magic) 단어로 떠올랐지만 지금 희망에 부풀었던 많은 디자이너들은 직장을 잃고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 의기소침해있습니다. 창의적 인재라는

자아 이미지를 가진 이들은 점점 외톨이 돈키호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발랄하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나이인 십대 청소년들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점점 더 심하게 입시경쟁에 묶여서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간 일어난 것일까요? 왜 창의적 인재들이 “찌질”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2011년 3차 서밋에서는 다시 홍콩창의성학교와 접속했습니다. 홍콩현대문화원 대표 에다 왕(Ada Wong)을 키노트 스피커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말보다는 보여주기엔 집중하는 자리로 마련하고자 했고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상상, 행동, 전환”로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싹트는 다양한 창의적 움직임을 홍콩, 유럽, 미국 등지에서 온 예술가들과도 만나는 축제의 장으로 벌여갔던 것입니다.

2012년 “자활의 환경, 자립의 기술”이라는 주제의 네 번째 서밋에서 우리는 창의성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회적 존재일 때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생태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이 시대적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며 개인적 문제이자 곧 사회구조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를 몰으면서 근대 문명의 생태주의적 전환이 필요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발명가이지 비전력 공방 공장장인 후지무라 야스유키(Fujimura Yasuyuki) 선생을 초대한 것은 그 분이 바로 생태적 전망에서 다양한 유형 무형의 발명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서밋의 주제와 방향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2013 서울청소년창의 서밋’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로 정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서밋의 단골 분들이 늘어났고 이제 생태주의로 전환을 한 창의적 분들이 연대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의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창의성이 줄어드는 고도관리 사회이지만 제대로 숨을 고르면서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분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서밋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서로 엮이고 새로운 행동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키노트 스피커로 1990년대부터 ‘큰 구상, 작은 학교 Big Picture, Small School 운동’을 벌여온 교육 운동가이자 주 3일을 지역사회에서 자기 길찾기 공부를 하게 했던 메트스쿨 설립자 데니스 릿키(Dennis Likky)씨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가진 ‘진로’ 개념을 바탕으로 나이 상관없이 한데 모여서 창의적인 삶을 살고 배우는

college unbound라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교 안팎의 학습’에 대해 꾸준히 작업을 해온 문화인류학자 수잔 블룸(Susan Blum) 교수를 초빙했는데 이 분은 최근 왜 학생들이 남의 보고서를 베끼고 표절을 하는 등 비윤리적 행동을 불사하는지를 연구하면서 대학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자기 계발과 자기 관리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적 동기화가 아닌 삶의 동기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대학은 무엇이며 학교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대 중국연구자로서,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현장의 교사로서 그의 통찰력을 나누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의 서밋은 그러나 해외에서 초대된 탁월한 분들의 강의를 듣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 분들을 우리의 축제에 초대하는 것이지 그 분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서밋은 특히 그간 우리와 함께 해온 단골들과 함께 판을 벌이려고 합니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청소년 진로’로 고심하면서 원가 돌파구를 보게 된 교수, 학교와 마을을 연계해온 교육자, 문화와 예술 영역에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는 청년들, 스스로의 문제를 또래들과 협력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 생태적 사업을 시작한 사업가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실천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분들이 모두 모여 축제를 벌이는 자리이고자 합니다.

창의서밋의 포맷은 늘 그러하듯 키노트 강연을 통해 문제의식과 언어를 공유하는 자리와 함께 비슷한 과제를 가진 이들이 모여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풀어나가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핵심에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장터가 있습니다. 10월의 사흘, 하자센터가 어김없이 마련하는 축제에 고른 숨을 쉬는 여러분들, 전환과 연대의 의미를 아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상 위한
2022 기년

전화과 연대

다함께 그려본 '지속가능한 삶'의 마을 지도

글 / 이지현(유즈, 협력기획팀)

서울시 주최,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이하 하자센터) 주최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된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이 많은 성과를 남기고 2014년을 기약한다. 이번 서밋은 돌연 추워진 주말에 진행되었음에도 모든 프로그램에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원이 몰리는 등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주제가었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였다.

이번 '2013 서울 청소년창의서밋'(이하 창의서밋)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주제로 단순히 적성이나 직종 안내로 풀어내는 대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찰하게 하는 진로교육, 그리고 기후변화와 핵 문제 등 그야말로 '지속불가능한' 상황에서 시급한 생태적 교육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또한 학교는 물론 지역, 사회 즉 마을이 교육의 현장이자 멘토이자 기반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청년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그룹들과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시도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청소년 진로교육' '생태적 교육' '사회적경제' 등 세 메인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모든 프로그램에 예상을 웃도는 많은 참여자들이 몰렸으며 특히 일선 학교 교사 및 청소년 활동가들의 비중이 높아 대안을 원하는 현장의 욕구를 반영했다.

10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은 모든 객석이 꽉 찬 가운데 미국 공교육 개혁의 모델로 꼽히는 공립 대안고등학교 메트스쿨(Met School)의 공동 창립자이자 디렉터인 데니스 릿키(Dennis Littky), 퍼머컬처(Permaculture)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 미국 노트르담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수잔 블룸(Susan Blum), 조한혜정 하자센터장 등의 개막 강연이 이어졌다. 피날레는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브라질리언 퍼커션 그룹 페스테자, 그리고 그들과 워크숍을 통해 퍼커션을 배운 SOS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과 대안학교인 무지개학교 학생들, 음악분야 사회적기업 에듀케스트라가 에너지 넘치는 합동공연을 펼쳐 큰 환호를 받았다.

청소년 진로 섹션에서는 메인 게스트인 데니스 릿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오픈토크- 교육은 모든 사람의 일 : 자신의 열정으로, 지역사회를

배움터로'를 비롯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진로교육 사례들을 소개했던 '진로학교 포럼-학교 안팎이 함께 하는 진로교육'에 많은 참여자들이 몰렸다. 교사들은 스스로 해보는 워크숍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하자센터의 대표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일일직업체험 중 목공, 게임 만들기, 영상 등을 전문 강사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 10월 25일의 '진로교육 워크숍 -일일직업체험을 통한 발상 전환'. 게임 만들기에 참여한 한 교사는 "게임을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니까 아이들 마음을 딱 알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13년 4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토요일진로학교 역시 교사 등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사례도 공유하는 워크숍으로 소개되어 큰 관심을 끌었으며,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청소년들이 옥상농원 텃밭에서 갓 딴 신선한 채소를 적정기술로 만든 화덕에서 요리하기, 폐목재로 의자/테이블/작은 집 만들기, 버려진 자전거를 재활용해 짐을 실어 나르는 카고 바이크 만들기, 직접 입을 작업복을 디자인해 재봉하고 일과 후 빨래하기 등 생활기술을 배우며 삶의 전환을 꾀했던 도시형 체험프로젝트 '라이프디자인캠프'의 쇼케이스 무대도 마련되었다.

생태적 교육 섹션에서는 10월 25일 오후 5시 '오픈토크 - 산업시대의 교육에서 퍼머컬처 교육으로'를 통해 수잔 블룸의 퍼머컬처 교육 개념이 더 자세히 소개되었으며 다음 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청소년 공개대담 with 수잔 블룸- 지속가능한 배움과 삶'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생태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학교 청소년들과의 생생한 대담이 이어졌다. 또 같은 날 저녁 7시부터 열린 '이 시대 교육포럼 1- 포스트후쿠시마 시대의 교육'에서는 2011년 핵누출사고를 겪었던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NPO법인 빈즈 후쿠시마(Beans Fukushima)의 와카츠키 치요(Wakatuki Chiyo) 이사장과 나나우미 요시오(Nanaumi Yoshio) 코디네이터가 참여해 현지의 상황과 향후의 계획을 들려주었다.

이밖에도 지역 및 사회적경제 영역의 그룹들과 연계해 준비한 마을장터 달시장, 적정기술 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에도 많은 이들이 참여해 쌀쌀한 늦가을의 추위를 녹여 주었다. 하자센터는 이번 창의서밋에서 오고 갔던 값진 논의들과 대안, 협업 프로젝트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자공공넷 등 온라인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창의서밋은 끝나지 않았다. 그저 첫 걸음을 떼었을 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지속 가능한

상업
2022

25~27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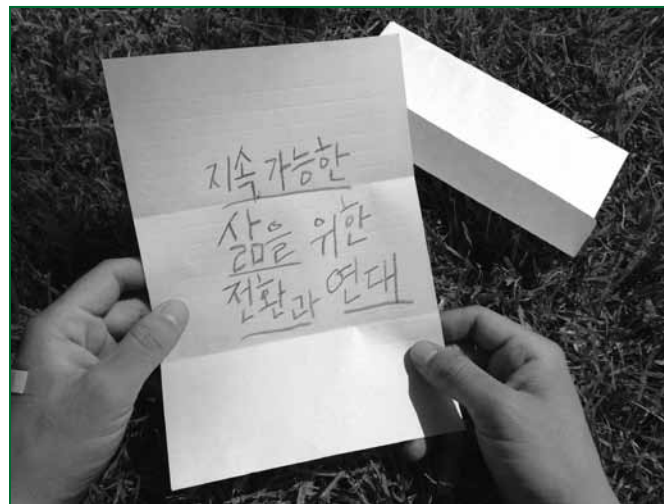
전체 아트워크 & 홍보

기획 및 진행 / 박활민(활, 공방팀), 이지현(유즈, 협력기획팀)

편집 디자인 / 이강현(프리랜서)

메인 콘셉트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전체 디자인 콘셉트는 주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에서 영감을 얻어 미래 혹은 현재로부터 온 메시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편지로 받아보는 듯한 설정을 메인 이미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 편지에 담긴 메시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BI 디자인

메인 콘셉트에서 출발, 포스터, 브로슈어, 자료집, 사후보고서 등 각종 인쇄물과 뉴스레터, 배너 등 온라인 홍보물에 두루 활용할 BI 디자인이 완성되었다. 컬러는 화려하지 않은 녹색 계열로 차분한 배색을 조화시켰고, 폰트는 국영문 모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나눔고딕과 나눔명조를 사용했다. 세부 요소로 사용한 캐릭터는 2011년 창의서밋 캐릭터를 응용해 시각적 일관성을 염두에 두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Transition and Solidarity for sustainable life on earth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포스터



공간 적용 사례

이번 서밋의 메인 이미지와 BI 디자인은 서밋 기간 중 하자센터 공간에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개막식을 비롯해 주요 포럼 및 세미나가 열리는 주무대인 하하허허의 경우 하자작업장학교 청소년이 드로잉한 크리킨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마을 그림으로 대형 배너를 제작, 천정과 무대 양옆에 배치했다.



홍보

서밋 BI가 확정된 후에는 이를 기본으로 다양한 홍보 톨이 디자인되었다. 이번 서밋에서는 일반 교사, 대안학교 교사, 청소년 활동가 등 관련 현장 전문가들을 모으고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언론을 대상으로 한 보도자료 배포 등 기존 홍보 루트를 활용하는 동시에 대중 홍보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각종 포럼과 워크숍 신청은 아카이브 하자(archive.haja.net)를 통해 받아서 신청자들이 다른 워크숍 및 부대행사들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자공공 아카데미의 콘텐츠 및 이를 주관하는 하자허브의 동향을 전달하고 있는 자공공넷(http://jagongong.net)을 서밋 체제로 전환해 취지문, 일정, 세부 프로그램 등 주요 정보들과 함께 데니스 릿키, 수잔 블룸 등 메인 게스트 소개부터 사소한 에피소드까지 서밋을 둘러싼 다양한 콘텐츠를 업데이트했다. 또한 서밋 기간 중 매달 한 번 발행되는 하자마을 뉴스레터 역시 서밋 체제로 전환, 기간 중 총 5회의 온라인 뉴스레터를 하자넷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했고 이를 하자센터 홈페이지 및 자공공넷에 연동시켜 더 많은 이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활이 기획한 서밋 BI는 국문과 영문 서밋 브로슈어와 오프라인 포스터, 웹 포스터, 온라인 뉴스레터, 옥외 현수막 등 다양한 형식의 홍보물에 적용되었으며 각 워크숍 및 부대행사 진행 주체들도 기본 BI를 활용해 개별 홍보물들을 제작하는 한편 행사가 열릴 공간을 자체적으로 연출하기도 했다. 이번 서밋을 기획하면서 판독들이 함께

학습했던 책들을 비치해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하고, 또 책 속 인상깊은 구절도 함께 전시했던 '서밋 밀줄긋기 책장'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창의서밋의 홍보에 있어 기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성과는 미미했다. '지속가능한 삶의 전환과 연대'라는 올해 주제는 주요 참여자들에게 즉각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나 이를 언론 및 일반 대중에게 설명할 때는 어려운, 실로 역설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지속가능성'을 실제 삶 속에서 고민하는 층이 분명히 있으며 이들은 하자센터와 연계되어 있으나, 더 많은 이들에게 확대되기에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번 서밋은 하자센터 및 마을의 향후 지향점을 뚜렷이 보여주는 전환점이었으며 첫 걸음을 뗀 것이라 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청소년 진로교육과 생태교육, 사회적경제 등 섹션 별로 나뉘어 각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직접 참여해 체험하거나 기획하고, 또 네트워킹하는 구조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기획 당시의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포럼과 워크숍, 부대행사들에 기획 단계에서 예상했던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의 참여자들이 함께했고, 무엇보다 이들은 서밋에서의 일회성 만남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만남의 자리를 기약해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다. 전환에서 이어지는 연대의 장. 이 정도면 올해는 창의서밋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을 해낸 한 해가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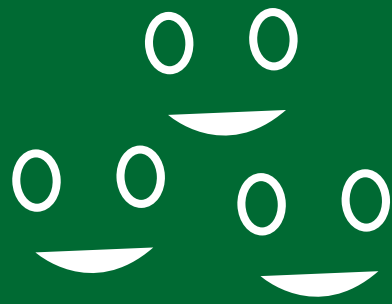
주요 소개 기사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소개
TBS <시사매거진 NOW> 2013. 10. 28
<http://tvcast.naver.com/v/95103>

“공장식 교육에 대한 해법은 농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해외 게스트 수잔 블룸 교수 강연과 인터뷰 소개 기사
<오마이뉴스> 2013. 10.2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9678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학습모델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문화예술교육웹진 <아르떼 365> 2013. 11. 13
<http://artezine.blog.me/90184609496>





세부 프로그램
특별행사

서밋열기(개막) : 개막강연

글 / 박형주(올제, 기획부장)

총괄 / 박형주(올제, 기획부장)

식 연출 / 김희옥(히옥스, 하자작업장학교 교장)

공간 연출 / 박활민(활, 공방팀)

인사말 및 개막강연 소개 / 황윤옥(물길, 하자센터 부센터장)

사회 / 이한나(고나, 허브팀), 강정석(바른돌, 협력기획팀)

개막 퍼포먼스 / 이진신(마임이스트)

음향 / 사회적기업 유자살롱

현장 진행 / 김유리(유리, 하자작업장학교|영상), 이윤주(윤, 하자작업장학교|조명),

홍성은(두부, 학교운영팀|무대), 이진아(떠비, 하자작업장학교|무대),

노은미(눔미, 운영지원부|무대), 신송현(하라, 운영지원부|라운지),

이동미(헤일로, 운영지원부|라운지), 김성용(잭키, 운영지원부|라운지),

김현우(우니, 운영지원부|라운지)

개막토크 / 수잔 블룸(노트르담 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 ‘공장제 교육에서

퍼머컬처(Permaculture) 교육으로’, 데니스 릿키(메트스쿨 설립자, 칼리지 언바운드

설립자 겸 디렉터) ‘당신의 지역사회를 배움의 장으로’, 조한혜정(하자센터 센터장)

‘다시 지속가능한 삶을 일구는 마을들’

공연 / 페스테자, SOS지역아동복지센터, 무지개학교, 에듀케스트라

개요 / 2013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이들, 국·내외 학자와 활동가,

공교육과 대안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 사회적기업가, 정책·행정 전문가, 청년과

청소년 등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세 사람의 키노트스피커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짚어 보았다. 하자마을 안팎의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펼치는, 우정과 나눔의 의미를 담은 축하공연도 선보였다.

일시 /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14:00-15:30

장소 /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하허홀

참여인원 / 국내외 교육자 및 학자,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정책·행정 전문가,

청(소)년 등 250명

기획

서밋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인 서밋열기의 경우 전체 주제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참여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경쾌한 애니메이션 형식의 트레일러 영상을 초기에 배치해 주의를 환기한 뒤

서밋 주제와 맥락이 닿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마임이스트 박진신을 초대해

진지하고 무게 있는 시작을 열었다. 이후 주요 내외빈들의 인사말 이후 서밋 기간 내내

주제를 담은 메시지를 발신하고 활동하게 될 조한, 데니스 릿키, 수잔 블룸 등 키노트

스피커 3인의 개막강연이 이어졌다. 첫 번째 강연이 끝난 뒤에는 하자 네트워크학교

청소년들과 SOS지역아동복지센터 팀이 자유로운 즉흥춤을 잇는 공연으로 선보였다.

강연이 모두 끝난 뒤 대미를 장식한 것은 하자작업장학교 청소년들이 주축을 이룬

브라질리안 퍼커션 팀 ‘페스테자’의 주도 아래 SOS지역아동복지센터, 무지개학교,

그리고 음악 분야 사회적기업 에듀케스트라가 힘을 합한 협연.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이들이 무대와 객석 구분 없이 모두 일어나 리듬을 타는 순간, ‘전환과

연대’의 의미가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듯 했다.

진행

1. 서밋 트레일러 영상

2. 여는 공연

- 마임 모놀로그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인생 / 박진신(마임이스트)

- 크리족 인디언 추장의 시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Only when the last tree has died,

and the last river been poisoned,

and the last fish been caught,

will we realize

we cannot eat money

3.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축하 영상

4. 조현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축하

5. 문성빈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원장 축사

6. 황윤옥 하자센터 부센터장 개막인사

7. 개막강연 1. 공장제 교육에서 파머컬처(permaculture) 교육으로

수잔 블룸(Susan Blum, 미국 노트르담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
중국학 전문가로 중국사회에서 언어적 표현과 실제적 의미의 괴리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Schooling vs Learning (학교에서의 '교육'
대 '학습')이라는 화두로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교육모델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모델로의 전환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

8. 중간 공연 : 합동 즉흥춤 / 하자 네트워크학교 청소년 및
SOS지역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

9. 개막강연 2. 당신의 지역사회를 배움의 장으로

데니스 릿키(Dennis Littky, 메트스쿨 설립자,
칼리지 언바운드 설립자 겸 디렉터)
미국의 도시형 공립대안학교 메트스쿨(Met School)의 공동 설립자로
40여 년의 교육경력을 지닌 교육혁신가이자 행정가이다. 빅픽처
컴퍼니(Big Picture Company)를 통해 메트스쿨의 경험을 매뉴얼로
체계화하고, 교장 교육 및 인증 과정을 만들어서 '작은 학교'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현재는 2009년 개교한 칼리지 언바운드(College Unbound,
메트스쿨의 대학버전)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10. 개막강연 3. 다시 지속가능한 삶을 일구는 마을들

조한혜정(하자센터 센터장)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위기상황에서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하자센터를 설립해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창조적 공공지대를 청소년, 청년 그리고 여성들과 함께 만들어왔다.
갈수록 난감해지는 시대의 해법으로 그는 최근 '마을'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
마을 공동체 위원회 위원장 일을 통해 실천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11. 서밋 전체 일정 안내

12. 닫는 공연 - 페스티벌, SOS지역아동복지센터, 무지개학교, 에듀케스트라 합동공연



서밋열기(개막)

개막강연 1. 공장제 교육에서 퍼머컬처(permaculture) 교육으로

수잔 블룸(Susan Blum, 미국 노트르담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

중국학 전문가로 중국사회에서 언어적 표현과 실제적 의미의 괴리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Schooling vs Learning (학교에서의 '교육' 대 '학습')이라는 화두로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교육모델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모델로의 전환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굉장한 에너지들이 넘쳐나고 매우 고무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제가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고, 성장시키는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나, 말들과는 달리 매우 의존적이고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은 태어날 때부터 서 있을 수 있고, 며칠 안에 걷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어른이라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사회 전체가 그들을 길러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들은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으며, 세상 곳곳을 바라보는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아이를 기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 혹은 유년기라는 개념도 장소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집니다. 한 장소에서는 이리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역할도 다른데요,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도 일을 하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돌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기술을 배우나요? 누구로부터 배울까요? 어디서 기술을 배우나요? 아이들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 그들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나요? 아이들은 노동을 하는가요? 그 일은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들이 유년 시절에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요? 만약 그들이 정규교육이 제도로서 정착되어 있는 곳에 있다면, 그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인가요? 혹은 협력하기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정규교육과정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것은 배우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학위나 자격증을 위함인가요?

학교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건물 안에 밀어 넣는다면 학교교육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학교교육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가치들이 소통되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산업적인 가치인가요? 대체 학교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건물 그 자체에 의해서 소통되어지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산업적인 가치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유기적인 가치일까요? 그것은 삭막하거나 무서운 느낌이 드나요? 그렇지 않으면 환영하는 느낌을 주나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는 전쟁을 모델로 하고 있나요? 학교가 전쟁터 같나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학교로부터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학교는 탐색과 즐거움, 쾌락 등을 고취하는 곳이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바깥에서 혹은 안에서 함께 있나요? 그들은 서로 몸을 부대끼나요? 혹은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나요? 그들은 단일한 모습으로 그저 다른 이들과 같은 사람으로 보이나요?

그들은 같은 나이인가요 다른 나이인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학교를 통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속한 세계에 기여하도록 기대되나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것들을 배우도록 요구 받나요? 그것은 아름다움일까요? 혹은 어떤 기성품 같은 것일까요? 아이들은 그들이 배우는 것을 활용하도록 요구 받나요? 그들은 누구로부터 배우나요? 아이들과 가르치는 사람 사이에서 다른 관계들은 무엇이 있나요? 학교에서는 어떤 종류의 권력이 전시되고 누가 이 곳에서 권력을 가지나요? 훈육은 또 어떠한가요? 이와 같은 특정한 방에서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누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어떻게 다루어지도록 요구받나요? 여기 또 다른 모습을 가진 젊은이들과 권력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권력을 가지나요? 그들은 권력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나요?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형태의 교육은 어떤가요? 이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배워지도록 요구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형태의 교육의 역할은 사회에 대비했을 때 무엇이 될까요?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상호교류 하나요?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배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배우는 어떤 것일 텐데, 의례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의례 역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의례는 사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러한 것들은 교육의 일종이지만, 모두 학교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현대적인 사냥꾼-채집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배우게 되지만, 바로 그들이 속한 사회 한 가운데서 행위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서로 갈라져 있지 않고, 나이에 따라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받아 적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어른이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배움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이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것들을 배우도록 요구받습니다. 우리에게 학교에서 모두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단지 수학이나 역사, 과학을 배우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배웁니다. 이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이라고 간주하는 다른 것들을 배웁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숨겨진 커리큘럼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커리큘럼과 별도로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배우는 것 들 중의 하나는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부하기를 배우고, 저항하는 것을 배웁니다. 때때로 이들은 외롭기도 하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큰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며, 그러한 것들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에서 발생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굉장한 지루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든, 대다수의 현대 학교들에서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사람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와 같은 짧은 조사를 한 번 받아들여 봅시다. 이따가 저는 농사짓기와 교육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존 교육에 관하여 익숙한 생각들- 일렬로 줄지어 섬, 건물들, 커리큘럼, 교사-와 같은 요소들을 공장제 농업에 비유합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동일하고, 단일하며, 예측가능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농업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퍼머컬처(지속가능한 농업)라고 부르는 또 다른 형태의 교육도 있습니다. 이는 더 유기적이고, 더 동글동글한 것이며, 더 많이 통합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를 바라볼 때,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선택의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숲을 통과하는 단일한 경로를 알려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목적지는 이미 알려진 것이고, 그것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모든 이들이 풍요롭고, 번영하며,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기 창의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세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everybody for coming this such a wonderful gathering and I see all the fantastic energy in this room and it's very inspiring. I'm going to introduce little bit about my perspective on topic of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nthropology. Um, I would introduce how we grow our children how do we cultivate our children because human are born helpless and have to be nurtured they are not like animals we're not like horses. When horses are born, they can stand up and walked within a few days. Human beings are defenseless and tiny and they need the entire society to bring them up to the point of adulthood. So every society has to figure out and answer to the problem of how do we raise our children.

We have a variety of ways and anthropologist to look all around the world can see there are great differences in the way we do it. So we can see the ways we raise our children vary from place to place. Even the very idea of children or childhood changes from place to place. So we can have one version in one place, another

version somewhere else. The family is different, in some places children work, in some places children take care of each other. How do children learn skills? Who do they learn them from? Where do they learn them? Do they spend all their time with other people their age inside, away from everything else? Do they work? Is work good? Is work bad? Should they be able to work as children? And if they are in institution where their education is formal what is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o teach them how to compete with other people? is to teach them to cooperate? How does it work? is it for learning sake? is it diplomas and credentials?

What is the role of schooling, how does schooling work if we put children in buildings? What is the form of schooling? what kinds of values are communicated? is it industrial? So what is the role of schooling? what values are communicated even by the buildings? Is it industrial or is it organic? is it stark and frightening? or is it welcoming? what do every trying to tell people? Do the schools model war? Is school like war? Is that what we want out of our schools or the schools encourage exploration and enjoyment, pleasure. are people together outside or are they inside? Are they touching each other or are they far apart? Are they uniform and one just like another? Are they all the same age? or are they different ages?

Again, what exactly are we telling by means of our school? Our children expect to contribute to the world of their families? and what kind of things are they supposed to learn? Is it beauty? or is it something packaged? are the children supposed to use what they learn? Who do they learn from? and what other relations between the person they learning from and themselves? What kinds of power are exhibited in schools who has the power here? what about discipline? what is the order in this particular room? and who tells everybody how it supposed to be? Here's another kind of youth and power, who has the power here? and what are they using it for and what are they trying to accomplish, what about this kind of education? What is supposed to be learned by means of that and what is the role of this kind learning compared to the society? Who is benefiting who is interacting?

This is another kind of learning. This is something people are learning, what are they learning by means of rituals? Rituals also teach us. They also teach the society. So how do that those things work? These are kinds of education, but they are not all in school. These are contemporary hunter-gatherers. So these are people in our day who are learning to be members of the society but they are learning by doing in the middle of their entire society. They are not separated by wars, they are not

separated by ages, they don't have a curriculum somebody could write down but in the middle of their life they learn how to be adults in their society.

Here's another kind of learning, something may be more familiar, um where everybody is supposed to do certain kinds of things. But even though we know, if we have schools, what everybody is supposed to learn, there are other things they learn in addition to learning math, in addition to learning history, in addition to learning science. They learn other things that we might consider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chool. Some people talk about this is the hidden curriculum. it's what's learned besides the other curriculum. One of things people learn is not to learn. They learn to refuse, they learn to resist. Sometimes they learn to be lonely, sometimes it feels to them like prison. Sometimes people get into big trouble, they really fall into despair and they can't really get out of it. One thing that happens in a lot of schools is a lot of boredom. And whatever is the case in most contemporary schools, there's a lot of stress. I think in Korea people know something about stress in school. So taking just this brief survey what do we learn and what should we do? Later today I'll be giving a talk where I am comparing agriculture and education.

So the kind of education that we're familiar with in rows, in buildings, with the curriculum, with the teacher, I'm comparing to industrial agriculture, everything is the same, everything is the uniform, everything is the predictable. And in contrast we have another kind of agriculture and another kind of education that I'm calling permaculture where it's much more organic it's much more round it's much more integrated it's much more diverse. So when we look at school when we look at educating our youth we have a choice. We can give them single path through wood where the destination is known where everybody is exactly the same or we can offer something different where people are exuberant and they thrived and they flourished and they take their part in the world in a creative and joyful w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서밋열기(개막)

개막강연 2. 당신의 지역사회를 배움의 장으로

데니스 릿키(Dennis Littky, 메트스쿨 설립자,
칼리지 언바운드 설립자 겸 디렉터)

미국의 도시형 공립대안학교 메트스쿨(Met School)의 공동 설립자로 40여 년의 교육경력을 지닌 교육혁신가이자 행정가이다. 빅픽처 컴퍼니(Big Picture Company)를 통해 메트스쿨의 경험을 매뉴얼로 체계화하고, 교장 교육 및 인증 과정을 만들어서 '작은 학교'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현재는 2009년 개교한 칼리지 언바운드(College Unbound, 메트스쿨의 대학버전)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싸이는 미국에 있고 저는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싸이는 여러분들에게 그의 사랑을 표시했고, 오바마도 또한 그러했지만 그는 제가 아닌 싸이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싸이처럼 저를 춤추게 만드는 제 운동화(스니커즈)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배운다는 것과 지식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많은 학교들은 학교가 전적으로 지식에 관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기 하자센터에 있는 여러분들은 학교를 진정으로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자 학생들은 손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어디 있나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보려 합니다. 박수를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학생들 중 한 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제가 있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멀린입니다. 멀린은 중학교 때 매우 거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의 고등학교에 왔을 때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공부하고 싶니? 너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어. 단지 그것을 깊게 공부해야만 한단다." 멀린은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네가 원하는 공부는 '죽음'에 대한 것이니?" 그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주제가 다소 어려워 보이는 주제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멀린은 묘지에 가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죽음에 관한 모든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미 가족 중에 죽은 이가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를 만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필기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청중들 앞에서 그들이 배운 것에 대해서 무대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멀린은 그녀의 페이지를 쓰기 위해 27가지 각기 다른 초고를 쓰고 작업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쳤고, 청중들 중에는 그녀의 부모들도 있었고, 선생님, 학생들 그리고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표가 모두 끝났을 때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멀린, 넌 죽음에 대해서 계속 더 공부할 생각이니?"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멀린은 대답했습니다. "저의 가족들이 캄보디아로부터 왔을 때 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 삶 전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 되었지요. 당시 죽음이라는 주제는 제 마음의 90%를 차지했어요. 저는 대수학을 할 수 없었고 역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든 제 생각은 죽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죽음에 대해 말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이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것을 공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근본원칙에 따라, 저는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부하게 하고, 이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학습자가 되도록 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인데요. 멀린을 생각했을 때, 그녀가 한 일과 그녀가 이 목표들 중에서 성취한 것들을 생각해봅시다. 그녀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주제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죽음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했는데요, 이로 인해 그녀는 앞으로 닥칠 더 많은 위험을 보다 쉽게 감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녀의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문제’의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그녀는 혼자서 작업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발표에서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발표를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을 공동체와 그리고 공동체 바깥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론 울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죽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녀 스스로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자존감과 용기를 얻었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썼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그녀가 평생학습자가 되는 과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내일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학생들이 이 모든 중요한 배움을 얻도록, 그로 인해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 지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매우 잘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쓴 책의 표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얼굴은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인데, 모든 제 학생들, 교사들, 부모님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한 이유를 말하자면, ‘교육은 모든 사람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 책에는 제 사진이 표지에 나오는군요. 이 사진은 저의 새 학교 건물들 중 한 곳의 사진입니다. 이 아름다운 캠퍼스는 제가 있는 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7시에 학교 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9시에 문을 닫습니다.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아서 서둘러 말해야겠군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빌 게이츠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저와 제 친구들에게 2500만 달러를 기부해 나라 곳곳에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가 캘리포니아, 뉴욕, 중부 지역에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도 생길 날이 오겠지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순응’보다는 ‘참여’하도록 길러내는 곳입니다. 우리 학교는 ‘철저함’,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것’, 당신의 삶에 의미를 가지는 ‘연관성’, 당신과 함께 협력해야 하는 ‘관계’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저는 “‘놀이’와 같이 즐거우면서 동시에 진지할 수 있을 때 이상적인 정신적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존 듀이의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이 ‘배움’이고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어떤 정보든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줌으로써, 당신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 “교육이란 그저 양동이를 채우거나,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저는 바라건대,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불꽃이 타오르면서) 오 안돼~! 감사합니다.

Psy in the United States and I am here in Korea. But he sent his love to you and I present Obama sent his love he could not be here also he wanted to be with Psy not me. I hope you like my sneakers that make me dance like Ps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learning and knowledge. Learning and Knowledge are two very different things. Many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schools here in Korea think schools are all about knowledge. I and everyone here in Haja center think school is really about learning. The Haja students, raise your hands. let's give me a hand. Where are you? We'll see if people really understand what I am saying, give me a hand.

I am going to tell you a story about one of my students. and you'll see what I mean about learning. and what my school is about. Her name is Merlene. Merlene was a

very tough kid in middle school. She got in fight every week. and then she came to my high school. and she was very angry.

But in my high school, we say to every student. "What do you want to study? You can study whatever you want. you just have to study it deeply." And Merlene looks at me and says. "I wanna study death." and I go "You want to study death?" she says "Yes". But because I say everyone can study what they want, I let her go, even though it seems like tough topic.

So Merlene started going to cemeteries. She started going funeral homes. She read everything she could about death. She interviewed people who were dying. She interviewed people who had people on their family that had died. And then it was time to make presentation. We do not have paper and pencil test. Students stand up and make presentation about their learning in front of a group like this. And Merlene talked she showed this many papers she had worked and worked and done 27 different drafts to get her paper write.

And she taught and her parents were in the audience, her teacher was in the audience, students were in the audience. and I was in the audience and I raised my hand when she was done. and I said, "Merlene, are you gonna continue to study death?" and there was silence in the room, and Merlene said "when my family came over from Cambodia, all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killed. And the only thing I could think about my whole life was about death. It filled my mind. 90% of the time. I could not do algebra, I could not do history, because all I thought about was death," and she said "now that you allowed me to talk to people about death, talk to my family about death, read about it, I have cleared my mind. and I am ready to study something else."

As a principle of the school, I felt very proud that I could let this young woman study what she needed to study in order to become a better person and a better learner. So the goals of my school, (looking at screen on the backdrop) I don't know I would go through fast, but think about Merlene, think about what she did and she gained in these goals. She was passionate about what she was doing because the death bothered her, so she studied hard. It was a risk for her to think about studying death which made it easier for her the next years to take more risks. She saw problems and really thought about what it meant to lose her family. She looked the things differently so she could step outside. She worked by herself really

studying then worked collaboratively with other people. She was creative in her presentation. She gave back to the community by giving speeches and groups out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ho had lost people in their family. She persevered. She worked hard. She cried. She worked hard, wanted to stop but she wanted to help herself understand death. She gained more self respect, more courage, able to use world around her. And in the process, she spoke well wrote well and read well. And really it was the beginning of her becoming a lifelong learner. And tomorrow when I speak I will talk about my school, and how we help students gain all these important learning so they can be a success in life.

You can see this very well but this is a picture of a cover of my book. and the face of the girl whose name is Cleopetra, is made up of all my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faces that make that up. Because I say, education is everyone's business. And there, a book in Korean with my picture on the front. That is the picture of one of the buildings of my new school, that a beautiful campus was built in the poorest area of my state. We open at 7 o'clock in the morning so everybody can use this school, we close at 9 o'clock at night.

And I have three minutes to go so I better talk fast. Um, we have, I got very lucky. Who knows who Bill Gates is? Well, Bill Gates is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and he happen to give myself and my friends \$25,000,000 to put schools all around country, so there are California, New York, and Middle and therein, Austrailia and another ones. And maybe someday in Korea. So these are what some other people say. Our schools are places that cultivate engagement rather than just compliance. And our schools are about rigor, do it hard, do it well, relevance-it has to have meaning to you and relationships you have to work together.

And I will end with, "to be playful and serious at the same time defines the ideal mental condition." And I have one last, so we say that education I talked about learning and I talked about knowledge. Some people think they just have to put information in your head, some people think that they want to inspire you, they want to help you come up with new ideas. And so there is saying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 is not the filling of a pail, not the filling of your brain, but the lighting of a fire. Hold on. And I will end with hopefully this light of fire. Oh no~ Thank you.

서밋열기(개막)

개막강연 3. 다시 지속가능한 삶터를 일구는 마을들

조한혜정(하자센터 센터장)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위기상황에서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하자센터를 설립해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창조적 공공지대를 청소년, 청년 그리고 여성들과 함께 만들어왔다. 갈수록 난감해지는 시대의 해법으로 그는 최근 '마을'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 마을 공동체 위원회 위원장 일을 통해 실천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앞에 두 분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금방 본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긴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지속가능성, 지금 삶이 별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는 이제 계속 “꿈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얘기하는데, 요새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꿈을 가지면 망한다” 내지는 “꿈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가져질 거다” 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노동’ 얘기를 좀 한 거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노동하는 몸인데, 노동을 해야 된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우리가 원래 나누는 존재인데, 서로 나누고 연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가능한 삶터를 일구는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런 마을을 갖고 있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류사를 관통해서 가장 인간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였을까? 생각하면 그건 ‘나눔’이었을 거다. “나누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지 않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눔’이라는 화두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영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살아남는 사람이죠. 근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회에서 어우러지면서 영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영리한 사람’만 되려고 그리고 결국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지구상에서 살아남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류학자 몇 분 얘기를 드릴게요. !쿵 부시맨(! Kung Bushman)을 연구한 리처드 리(Richard Borshay Lee)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분이 한 2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필드워크(Fieldwork)를 하고 이제 헤어지니까 정말 섭섭해서 소를 잡아서 큰 축제를 벌였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축제를 벌이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 추장들이 다 “고기가 질겨서 못 먹겠다”고 계속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전혀 질기지 않은데, 왜 이럴까? 생각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비싼, 큰 소를 잡은 걸 너무 자랑스럽게, 약간 이렇게 생색을 낸 거죠. 원래 생색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고 나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화폐경제에 와서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줄 때 막 생색을 내고 아무한테 달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여기가 이제 북미 인디언들의 포트래치(Potlatch)라는 축제인데, 여기서도 추장, 열심히 일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사냥을 해서 가족이라든가 뭔가를 축적을 하면 어느 날 옆의 추장하고 경쟁을 해서 그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기껏 열심히 모아놨던 걸 파괴도 하고 나눠주고 그래서 알거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축적을 해놓고 만약에 기근이 왔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런 기능적인 차원도 있고,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항상 나누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러브 스토리(Love Story)>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일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이탈리아 계통의 아버지가 딸이 죽고 사위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위가 맨 끝에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고맙다고 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미국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누가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 “You’re Welcome”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고, 항상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좀 원시적인 사람이라서 그냥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주면 고맙게 받는 거지만 그걸 “고맙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내가 고마운 일을 해주고 나서 그 사람이 “고맙다”라고 하면 정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인간이 그냥 주고받고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갈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나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한테 보답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 아이가 그 다음 아이한테만 해주면 되는 거죠. 내가 두 사람에게 받은 만큼 줄줄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상호호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관계는 정말 ‘시장’적인 관계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바로 부모한테 계속 고맙다 얘기하고 부모도 아이한테 고맙다 얘기해야 하고. 굉장히 문제적인 사회가 아닐까?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되게 재밌는 것이라. 한 번 볼까요? 우리 자본주의, 50만년 인류의 역사를 3분 동안 만든 겁니다. (영화 상영)

굉장히 막강한 영상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돈,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낸시 에이블만(Nancy Abelmann)이라는 친구가 물었더니 “부자 될래요” 그랬대요. 이 친구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인사로 “부자 되세요!” 라는 얘기를 듣는 사회에 살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사람처럼 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돈을 많이 기부하신 분들이긴 하죠. 록펠러와 빌 게이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고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보험에다가 돈을 다 넣죠.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 입시 공화국이라고 하죠. 입시에 돈 다 넣고 남는 돈은 보험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된 거구요. 그래서 요새 친구들은 십대, 이십대까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대학에 와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물어보면 ‘한 번 실수하면 떨어져서 끝장’이다, ‘벼랑 끝에서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보셨죠? ‘중학생의 하루’가 어떤 건지? (영화 상영)

전혀 지속가능한 삶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살 거냐? 그냥 개인으로 죽어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개인이 표류하고 있고 결국엔 외톨이로

점점 외로워지고, 힘들어도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열정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지속가능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Creative Commons.’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공유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자센터가 그런 공유시대죠. 공유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장소’, ‘Place’. 장소가 필요하고 ‘관계성’. 관계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함께 해결하는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가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 한 장소에 있을 때 그게 축적이 되니까, 함께 풀 사람이 있고, 함께 풀 문제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지속가능성’이 되는 거죠.

하자의 예를 들어보면 초기에는 “스스로 삶을 업그레이드하자!” 이때만 해도 자기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든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14년 전에는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했었죠. 하지만 점점 가면서 사실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삶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늘어갔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강조한 것은 ‘같이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는 자리? 그런 시간?’ 우리 인간이란 건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고, 같이 있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새 ‘나눔부엌’을 하잖아요. 나누는 것 자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꼭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하기보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너무 난감하다”는 걸 공유하자”는 거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린다. 빨리 풀시다”는 사람은 쫓아내요. 밖에 가서 하시라고. 우리끼리 모여서 “정말 문제가 뭐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듣고 하는 그런 자리? 때로는 이런 이름을 붙이죠. ‘심심모임’. 사실 심심할 일 없는데, 그런 심심함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요.

결국 ‘장소’ ‘마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이 ‘단골’로 가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거기 너무 목적을 갖고 갈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고 노닥거리는데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동네’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거기서는 ‘창조’적인 어떤 관계들이 맺어지고 쌓이는 거죠. 그런 관계. 그냥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관계가 아닌, ‘관계’가 있나? 특히 그 ‘관계’가 세대, 계층, 성별 간 다양한 ‘연대’일수록 많은 걸, 여러분들이 많은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그러한 ‘creative한 관계’에 기반해서 ‘해결’을 해가는, 사실은 그 해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creativity’인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의 것이 무기를 막아서 평화를 만들었다고 ‘전쟁’과 ‘평화’의 로고라면, 요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모든 존재들, 해와 달 그리고 새와 물고기와 네발 달린 짐승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나눔’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밋 닫기(폐막) : 쇼하자

글 / 박형주(울제, 기획부장)

총괄 / 박형주(울제, 기획부장)

폐막스텝 / 이지현(유즈, 협력기획팀|영상), 손민정(브리스, 교육기획팀|조명), 문보미(이서, 협력기획팀|무대), 김승영(라운, 교육기획팀|무대), 인수진(절미, 교육기획팀|무대), 신송현(하라, 운영지원부|라운지), 노은미(눔미, 운영지원부|라운지), 이동미(헤일로, 운영지원부|라운지)

개요 / 3일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함께, 또 각자 했던 작업들의 성과를 나누고 앞으로의 교류와 협업을 다시 한번 기약하는 연대의 장

일시 / 2013년 10월 27일 일요일 14:00-16:00

장소 /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참여인원 / 60명

기획

‘서밋 닫기(폐막)’은 2013년 창의서밋을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주제 아래 열렸던 주요 행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쇼하자’ 형태로 기획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2박 3일간 지속가능성을 꿈꾸고, 실천하려는 이들이 모인 창의적 공유지대였던 2013 창의서밋의 좋은 기운을 일상으로 확산하고, 또 여기서 만난 인연을 더욱 굳건히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서밋 기간 동안 열렸던 세부 프로그램들의 이모저모를 담은 결과 영상 상영 후 청소년진로, 생태적교육, 사회적경제 등 각 섹션의 행사들에 대한 결과 공유가 이어졌고 키노트스피커들을 비롯해 3일간 서밋에 참여하고, 또 지켜본 이들의 회고도 들어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

1. 서밋 밑줄긋기 영상

- 지속가능한 삶은 00이다 (영화제작소 눈 제작)

2. 청소년진로 섹션 워크숍 쇼하자

- 김진옥(바다, 교육기획팀), 조유나(가비, 공방팀)

3. 생태적교육 섹션 워크숍 쇼하자

- 홍성은(두부, 학교운영팀), 예서영(마루, 하자작업장학교)

4. 서밋회고 영상

5. 서밋 회고

“매우 놀라운 행사였고,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사람들을 지켜보며 서로 배려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다. 심각한 이슈지만 모두들 재밌게 참여했다.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만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달시장에서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걸 보는 것도 놀라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함께 모으는 걸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다. 이 행사와 이벤트는 평생 잊지 않을 기억이다.”(수잔 블룸, 노트르담 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영감을 받은 듯하다. 교육이라는 것은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다. 여러분이 제게 불을 붙였다.”(테니스 릿키, 메트스쿨 설립자, 칼리지 언바운드 설립자 겸 디렉터)

“3일 동안 하자센터의 철학에 기반한 여러 행사에 참가하면서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다. 후쿠시마에 돌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내년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꼭 데려와 보고
싶다.”(와카츠키 치요, 빈즈 후쿠시마 이사장)

“지속가능한 삶이 시대의 화두인 것은 분명하다. 놓치지 않고 가는
건 우리의 과제로 떨어졌다. 지치지 않고 가는 게 우리의 과제다. 잘
갑시다.”(김희동, 대안교육연대)

6. 향운옥 하자센터 부센터장 폐막인사

7. 달는 공연 : 브라스밴드 공연 및 다함께 추는 왈츠

- 에듀케스트라 청소년 브라스밴드(노원 중계복지관 '통스타', 명일중학교 '늘빛브라스')
- 하자작업장학교 춤 워크숍 참여청소년



서밋 나눔부엌

글 / 변세경(나무, 허브팀)

기획 및 진행

하자센터 허브팀, 운영지원부 및 전 판돌

개요

지난 6월부터 영등포 지역에서 나눔과 돌봄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열려온 하자허브의 '나눔부엌'이 창의서밋 개막을 기념해 특별히 오픈했다. 동료, 이웃과 소박한 반찬, 따뜻한 밥을 나누며 커뮤니티로 성장해가는 나눔부엌의 취지를 공감하는 이들이 함께했던 시간

일시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12:00-13:30

장소

하자센터 신관 1층 중정

참여인원

220여 명(창의서밋 초청자 및 참가자, 하자센터 판돌, 하자센터 연계 사회적기업 등 입주민, 하자 네트워크학교 청소년 등)



기획

'모여서 함께 먹는다'는 생각으로 판돌들이 지난 6월부터 매주 수요일 허브 커뮤니티카페에 모여 함께한 점심식사가 자연스럽게 '나눔부엌'으로 꾸러졌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먹거나 요리를 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늘 사먹다 보니 '집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오순도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가 모두에게 필요했던 것 같다.

허브는 특별히 '돌봄과 나눔'을 구현할 일을 만들고, 같은 상상을 하는 사람들을 엮어내는 공간이다. 하자의 청소년, 판돌들과 입주민, 그리고 하자에 드나드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은 모두 하자의 식구들이고 주민이며, 하자는 이들이 함께 하는 '마을'이다. 하자마을에서 매주 한 번 만나 따뜻한 식탁을 만들고, 정담을 나누는 자리에는 모두 한 가지씩 들고 온 반찬으로 늘 풍성하다.

한두 분씩 지역민들이 오시기 시작하고, 기회가 되면 작은 음악회도 열린다. 한 접시의 반찬이나 식재료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은 기술이나 재능도 나누고, 새로운 정보도 교환하는 자리. 나눔부엌은 하자마을 주민과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고 키워 나가는 '마을의 부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행

이번 창의서밋을 맞아 매주 수요일 열리는 나눔부엌은 특별히 개막일인 10월 25일, 금요일에 열려 많은 이들과 그 의미를 나누었다. 중정에 설치된 적정기술 화덕에서 갓 삶아낸 고구마와 감자, 단호박 등과 주먹밥, 샐러드, 떡, 과일 등 소박한 음식을 다양한 배경을 지닌 서밋 참여자 220여 명이 모여 나누었다.

전환과 연대

영화 <웰컴투 동막골>에서 마을로 흘러들어 온 병사가 이 마을의 촌장에게 질문한다. "큰 소리 한 번 안 지르는데,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기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촌장님의 말씀을 잘 따르냐?"고. 그러자 늙은 촌장이 나지막한 소리로 한 마디 한다. "뭘 잘 먹여야지." 가진 것을 서로 잘 나누어 먹게 한다는 뜻일 것이다.

'부엌에서 인심난다', '먹다가 정분난다' 등 우리에게 먹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다. 방송에서 우리만큼 '음식'을 많이 다루는 나라가 또 있을까도 싶다. 아무튼 모든 게 풍요로워진 지금도 여전히 '먹는 것'은 공통의 관심사이고 화제이다.

'먹는 행위'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먹는 즐거움 외에 또다른 즐거움이 같이

따라온다면 더욱 금상첨화 아닐까.

하에서의 나눔부엌은 '일단 함께 모여 먹어보자!'로 시작되었다. 반찬 한 가지씩 들고 와서 열 사람이 모여 먹으면, 열 가지 반찬을 맛볼 수 있다. 비단 이 집 저 집의 반찬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둘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가는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동료를 알게 되고, 요즘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다. 그저 지나며 눈인사를 나누었던 사이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말하는 올해 창의서밋의 식탁이라면 마땅히 '나눔부엌'으로 차려져야 했다. 사실 개막식 점심만 '서밋 나눔부엌'이란 타이틀을 달았지만 서밋 기간 내 매 끼니가 커뮤니티가 함께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오가니제이션 요리가 운영하는 대안학교 '영세프스쿨' 친구들은 개막식 열린 달시장에서 수익금을 기부하는 비빔밥 행사에 나섰고, 또다른 하자마을 식구인 '소풍가는 고양이'는 10월 26일 하루 식사를 담당해 분주했다.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적정기술 난로 옆에서는 서밋에 온 남녀노소 참여자들이 등글게 모여 앉아 구수하게 구워진 고구마를 나누었다. 전환과 연대, 라는 거창한 말에 앞서 밥 한 공기, 한 입 요깃거리로 소통하는 나눔부엌은 내년에도 하자마을의 중요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서밋 하자투어

글 / 홍성은(두부, 학교운영팀)

기획 및 진행

홍성은(두부, 학교운영팀)

일시

2013년 10월 25일(금) 16:00-17:00

장소

하자센터 전관

참여인원

서밋 개막식 참석자 중 사전 신청한 15명



기획

하자센터는 2010년 '하자 창의허브' 개관을 기점으로 '자공공 -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을 콘셉트로, 나와 이웃을 살리면서 협력을 통한 새로운 공공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실험들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교육계와 환경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의 관련 단체들의 방문 및 공동 사업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서밋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의 새로운 실험을 실천하는 현장으로서 하자를 알리고자 별도의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서밋 하자투어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하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들과 그 현장들을 중심으로 그간의 변화와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 투어 순서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생략하고, 하자 본관과 신관을 비롯한 공간 중심의 소개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1시간이라는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맞추어, 주로 핵심 공간을 돌아보며 하자의 역사 및 흐름을 소개하는 구성으로 준비했다.

진행

전체 서밋 일정에서 하자투어는 첫째 날 오후 시간대에 배치하여, 개막식 및 진로교육 워크숍에 참가한 성인들의 참가를 유도했다. 실제로 참가자 구성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교육 관련자들로, 일반 투어에 비해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었다. 투어는 하자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및 사업 분야와 주요 실험 사업 설명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전체 설명

1999년 IMF 경제위기에 대두된 청년 실업과 이를 통해 제기된 청년 및 청소년 문제의 창의적 해법으로서 기획된 하자센터, 그리고 2010년 후쿠시마 핵 사고를 마주하면서 시작된 새로운 고민들과 흐름을 하자작업장학교의 로고(고래-크리킨디)를 보면서 설명했다. 서울시의 대표적 청소년 시설로서, 시대의 변화와 이슈들을 반영하며 청소년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 그간의 역사에 참가자들도 많은 공감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공감은 자연스럽게 조직 구성과 운영 원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사업분야

- 청소년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 : 하자를 대표하는 청소년 사업으로 주로 일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요진로학교, 창의캠프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진로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생애설계 안에서의 자기 진로 찾기'라는 새로운 실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 하자 네트워크학교 : 하자 안에 자리한 5개 대안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공공적 가치와 역할을 함께 고민하며, 협력해 가기 위한 네트워크학교이다. 2001년 도시형 대안학교로 출발한 하자작업장학교를 비롯하여,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에서 운영하는 여행학교 '로드스플라',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요리학교 '영세프스쿨', 청(소)년들의 자립을 고민하며 창업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머리를 배우가는 '연금술사 프로젝트', 음악으로 무중력 청소년들의 사회 연결을 돕는 '집밖에서유유자적 프로젝트'까지 총 5개의 학교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사회적 경제 : 하자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사회 데뷔를 고민하며 시작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션은 총 9개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자센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자립을 고민하며 다음 단계의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대중적인 인지도 및 확산을 꾀하기 위한 마을장터인 '영등포 달시장'이 있으며, 2012년 '제1회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를 주관하여 관련 아이디어 및 활동가를 발굴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 하자허브 : 2010년 새롭게 시작된 하자센터의 실험으로, 교육과 청소년을 둘러싼 시대 흐름을 반영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하며 돌봄과 상호 호혜가 있는 '마을'을 지향하고 있다. 목공방, 자전거공방, 허브 워크룸이 있으며 '자발성'의 원리에 의해 서로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일과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주요 실험사업

후쿠시마 사고 이후, 소비 위주의 문명 시대를 성찰하며 에너지 전환과 자활을 위한 작은 실험들을 계속해가고 있다.

- 에너지 실험 : 바이오 디젤, 자전거 발전기
- 적정기술 : 햇빛 온풍기, 화덕, 햇빛 건조기, 햇빛 온풍기
- 자활, 자금, 협력 : 옥상농원, 한평 집짓기, 자전거 공방, 목공방, 허브 워크룸
- 마을 : 허브 커뮤니티카페, 수요 나눔부엌

전환 및 연대

이번 투어에는 하자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하자 방문이 어려웠던 참가자들이 많았다. 관련 청소년 기관과 대안학교 및 일반 학교 교사들이 주로 참여했다. 그간 인터넷으로만 보아왔던 하자의 역사와 사업들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도가 높았으며, 특히 일반 학교 교사들의 경우 현재 학교와 학생이 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연계 등의 적극적인 연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시간 배치 및 안내 등 몇 가지 보완점을 생각해 볼 때, 이후 투어 프로그램 기획 시에는 전체적인 하자 설명뿐 아니라 후속 모임 등을 배치하여 구체적인 연계 지점을 고려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화두 아래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실험의 과정과 성과들을 나누고, 이를 통해 시립기관으로서의 하자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공공성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서밋 하자투어의 성과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밋 밑줄긋기 모임 및 밑줄긋기 책장

글 / 이한나(고나, 허브팀)

기획 및 진행

이한나(고나, 허브팀)

진행 및 협조

김성용(책키, 운영지원부), 오혜리(아라, 협력기획팀),
이정규(다담, 교육기획팀), 최수임(누리에, 교육기획팀),
인수진(절미, 교육기획팀) 외 전 판돌

개요

하자 스태프(판돌)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주제로 하는 올해 서밋을 준비하며 함께 읽었던 도서들을 책장에 비치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 속에서 인상깊은 구절을 뽑아 전시

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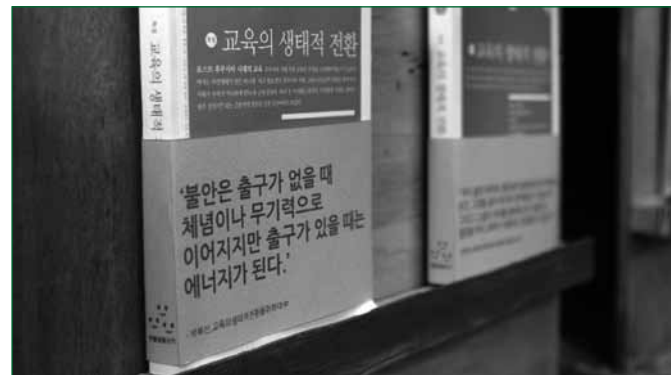
서밋 기간 내내

장소

하자센터 본관 1층 쇼케이스 돌림책장 및 신관 허브카페 책장

대상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기간 중 하자센터를 찾은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대중



기획

하자에서 판돌로 일한다는 것은 곧, 끊임없는 배움과 함께, '학습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불통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이 시대, 타인에게 말 걸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계 맺기의 경험' 또한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하자 내에서도 최근 판돌 간, 부서 간 소통이 현격히 줄어들고, 전체 회의 중에도 대다수가 침묵을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문제가 하자 바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2013년 창의서밋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자 판돌 공동의 문제의식으로 떠올랐고, 책을 중심으로 학습뿐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장치이자, 하자 내에서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하나의 문화로서 '판돌 밑줄긋기'가 기획되었다.

본래 '밑줄긋기'는 하자허브에서 판돌들이 비정기적으로 열곤 하는 작은 규모의 자발적 학습 모임이었다.

이번 창의서밋을 준비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책 3권(〈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사회를 잇은 학교, 학교를 잇은 사회〉, 〈오늘의 교육〉 4호, 5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삼십 여 명의 전 판돌들이 총 6개조로 나뉘어 한 달에 걸쳐 3번의 만남을 가졌다. 각 조가 3회의 밑줄긋기 모임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수행해야 했던 조건은 단 하나. '모임의 기록을 하자 내부 구성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다른 조의 진행 상황과 분위기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밑줄긋기 모임을 진행하면서 각 조의 조장을 맡은 6명의 판돌들은 2~3회의 모임을 가졌다. 각 조별 진행과정과 더불어 진행상의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가장 큰 어려움은 '모임 시간 잡기'였다. 조장 모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밑줄긋기 모임이 모두 끝나고 나서, 인트라넷 혹은 메일을 통해 공유된 각 모임별 기록을 판돌 내부 학습으로 마무리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밋을 찾는 방문자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낭독회나 저자들의 작은 강연 등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판돌들이 의견을 모은 것은 방문자들로 하여금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서재' 형태였다. 서밋이 진행되는 3일간 한 귀퉁이에 텍스트의 형태로 게시해서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키워드들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자는 의도였다. 이 서재를 기존에 판돌들이 구입하거나 대여한 책들로 채우면 따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진행

- 판돌 밑줄긋기 모임 : 이번 창의서밋을 준비하면서 더욱 활발해진 판돌 밑줄긋기 모임은 삼삼오오 모여 함께 저녁도 만들어 먹고, 간식도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책을 함께 읽으며 각자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들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

-서밋 밑줄긋기 책장 : 판독들의 밑줄을 사람들이 ‘엿보는’ 콘셉트로 디자인 작업을 했다. 책을 감싸는 ‘띠지’ 위에 각 책의 주인인 판독의 밑줄을 편집해 넣고, 뒷면에 밑줄에 대한 부연설명을 구어체로 곁들여, 서밋의 주제를 더 편안하고, 인간적인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의도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좋았는데, 서밋 책장을 설치한 장소가 서밋 참여자들이 주로 오가는 통로가 아니라, 본관 1층 쇼케이스 한 구석이었기 때문에 노출 빈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관에 부수적으로 배치해 둔 ‘판독의 서재’는 오히려 오고가는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가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아마도 서밋 워크숍에 참가하고 약간은 고무된 참가자들이 앞으로의 공부에 서재에 배치된 책들이 추가적인 레퍼런스가 되어 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또한 서밋 기간 하자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시간을 메꿀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것 같다. 은은한 조명을 함께 배치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 것도 효과를 발휘했다. 책을 꺼내 한참 읽어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스프르~ 훑는 정도로 호기심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다.

피드백

“올해 서밋을 준비하면서 서밋은 손님을 맞이하는 큰 축제와 같은 것인데, 나는, 하자의 판독들은 준비가 되어있나? 라는 고민이 들었다. 서밋 준비가 실은 업무처럼 주어졌는데, 이를 통해서 하자라는 공간이 ‘학습’ ‘연구’도 병행해야 하는 업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나름대로는 해석했다. 꼭 정리하고, 책을 읽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부족했지만, 연사 섭외할 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한 판독의 소감이다. ‘서밋을 위한 판독 밑줄긋기’는 자발적 모임이었던 이전 밑줄긋기 모임의 형식과는 달리 전 판독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기에, 어떤 판독에게는 ‘학습’ 자체가 하자에서 일하는 판독이라면 응당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책 3권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데에 대해 궁금하긴 했다. 이번 서밋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전에 관련 자료를 읽고, 생각도 갖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사실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각자 평소 독서량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하자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와 연결되어 책을 선정하는 과정 또한 자연스럽게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주제 선정과 그에 맞는 연사 선정, 섭외 등 여러 실무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상적으로는

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천천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서밋의 경우에는 준비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다.” 라는 반성도 이어졌다. 하지만, “큰 회의만 하다가 작은 소모임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또 각 팀의 판독들이 섞이게 되니 좋았다. 서밋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팀 간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환

하자허브 203호 워크숍 한 벽에 걸려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등글게 모여 앉는 것이다’라는 글귀처럼, ‘서밋 밑줄긋기’는 모든 변화가 등글게 모여 앉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자 안에서 작게나마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내 주변에 고립된 동료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원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 ‘서밋 밑줄긋기’ 모임을 통해 약간은 해소되었다. 하자가 다루고 있는 담론 자체가 자칫하면 일상과 괴리될 수 있는 큰 범위의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개인의 소외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경우 학습으로 거둔 성과뿐만 아니라 관계회복 측면에서 거둔 성과가 비중있게 평가되어야 한다.

참여자들은 이후에도 꾸준히 밑줄긋기 모임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는 동의했으나,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 이번에 모임이 가능했던 것은 서밋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책 읽는 모임은 이상적이고 좋다. 하지만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려면 조직적, 계획적으로 모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모임도 좋지만, 이러한 계기로 만나는 것이 나로선 더 좋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밑줄긋기 모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어 나가려면 비정기적이더라도 꾸준한 판독 모임이 이어지는 것이 좋으리라는 판단이 든다. 하지만 “학습이 얼마나 충실히 되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한 판독의 질문이 말해주듯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일상적인 학습과 점점이 있어야 책 선정부터 시작해 공감대도 더욱 긴밀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자에서 일하기 위한, 또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업들을 구현하기 위한 모임을 만드는 것이 의미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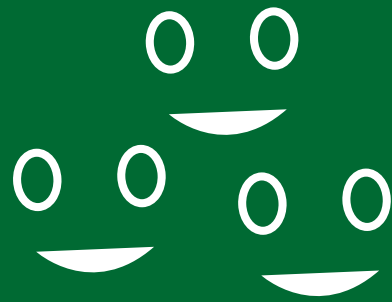
연대

밑줄긋기에서 한 조였던 다담과 활의 제안으로 ‘살리고 살리고’라는 또 다른 학습모임이 생겼다. 밑줄긋기 모임이 책을 매개로 한다면, ‘살리고 살리고’ 모임은 업무가 끝나고 모여서 가벼운 손작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활동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하자허브 지하 목공방에 모여 밑줄긋기 책모임을 통해 가졌던 의문들을 직접 몸을 쓰며 찾아보는 것이 '살리고 살리고'에 참여하고 있는 판독들의 목적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밑줄긋기 후속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비슷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지닌 판독들이 서로 연대하는 징후라 하겠다.

10여 명이 함께 하는 '살리고 살리고' 모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확산될지는 알 수 없다. 책상 앞에 앉아서 회의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일상 속에 자그마한 균열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들의 활동을 지켜볼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주제는 이번 서밋의 주제일 뿐 아니라, 판독 개개인으로라도 삶에 있어서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하자가 지향하고 있는 '전환'이 삶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하자가 그간 걸어온 길이 결코 삶과 이론의 분리에 있지 않았기에, 하자를 일터로 삼고 있는 지금의 판독들 역시 많은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전체에 '전환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즈음, 어려운 길에 들어선 판독들 사이에서도 공감과 연대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세부 프로그램
포럼 & 워크숍

오픈토크 - 교육은 모든 사람의 일 : 자신의 열정으로, 지역사회를 배움터로

글/ 김유익(뽀꼬, 허브팀)

기획 및 진행

김유익(뽀꼬, 허브팀)

발제

데니스 릿키(빅픽처 러닝, 메트스쿨 공동 설립자, 칼리지 언바운드 설립자 및 디렉터)

사회

김찬호(성공회대 초빙교수)

패널

김선옥(꿈틀학교 대표교사), 서정화(노원 상상이룸센터 센터장),
금지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개요

데니스 릿키(Dennis Littky)의 강연을 통해 미국의 대표적 도시형 공립대안학교인 메트스쿨(Met School)과 이를 대학과정으로 확장한 칼리지 언바운드(College Unbound) 사례를 공유한 자리. 또한 패널토론을 통해 틀에 박힌 정규 교과나 학교 안의 한정된 학습자원을 넘어 학교 밖에서의 공동작업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개성과 진로를 발견해가는 학습모델에 대한 실천적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일시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16:00-18:00

장소

하자센터 신관 203호

참여 인원

일반 정규학교 및 혁신학교, 대안학교 등 교사, 청소년 활동가 등 50명



기획

관행이 되어버린 전통적인 학습방법 아래, 학교에서 이수하는 정규 교과과정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을 암기하거나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에 모든 자원을 쏟아 붓는 한국 사회에서 실제 삶터, 일터에서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명문대 진학이 '학생'들의 획일적인 목표로 설정되고, 이를 위한 관행적 학습방법이 그 강도를 높여가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공히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빅픽처 학습과 메트스쿨의 성공 사례는 한국 교육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빅픽처 학습은 '큰 그림 작은 학교' 운동을 통해, 이미 미국 내에서 50여 개교, 전세계에 110여 개교를 개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면서, 인턴십 학습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빅픽처 계열 학교 학생들은 재학중 지속적으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일주일에 이틀 이상, 학교 밖의 업무 현장에서 인턴십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의 학습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제 일에 필요한 기술과 자신감을 획득한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실천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학문적 지식을 더하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교사, 동료 학생들과 공유해 평가를 받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다.

이미 지난 2004년에 한국에서도 서울시대안교육센터 등을 통해 널리 소개된 바 있는 빅픽처 학습 및 메트스쿨 공동 설립자 데니스 릿키 박사를 초청하여, 창립 철학과 이념, 20여 년간의 성장 역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했다. 특히 한국에 메트스쿨을 소개한 학자, 비슷한 경험을 쌓고 있는 교육자 등을 패널로 초청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진행

당초 진행 방식은 릿키 박사의 발제 후 패널 토의, 플로어 질의응답과 같은 기본적인 워크숍 형태를 채택했으나 릿키 박사가 일반 참가자들과의 더 적극적인 토론 및 질의를 원하면서 발제 중간 중간 패널, 일반 참가자 등 여러 사람들의 질문이 뒤섞여 매우 활기찬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시 초청을 받아 방한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청년 문화교류팀도 10명이 참가해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토의해 참여했다. 한국인 참가자들도 영어로

진행되는 릿키 박사의 발제를 바로 이해하고 즉시 반응하거나 영어로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 통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리듬이 끊기거나 긴장감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 제약 때문에 패널이나 참가자들에게서 심도 깊은 질문이 많이 나왔으나 전부 소화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패널의 경우 본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간단한 식사 자리에서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기에 한국에서의 실행 경험을 공유하고, 질문에 대한 확인을 받으며 다소 아쉬움을 덜 수 있었다.

토요일 늦은 오후 하자허브 신관 203호에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한 70여 명의 인원이 빼곡이 들어찬 가운데, 참가자들은 두시간 내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흥미진진하게 강연과 토론에 참여했다. 이런 반응으로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판단된다. 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좀 더 소개될 수 있었다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주류 엘리트 교육의 흐름과 맞물려, 훨씬 많은 청중을 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주류 교육계의 현장 학습,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수용 태도 혹은 잠재적으로 과도한 상업성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서밋 자체의 주제와 충돌할 가능성 때문에 서밋 핵심 이벤트로 프로모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전환과 연대

릿키 박사의 강연과 서밋 전후 기간에 나누었던 여러 대화를 통해 다섯 가지 정도 주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ngagement'의 중요성. 빅픽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의 'Engagement'를 강화하는 것이다. 'Engagement'는 '호기심과 관심에 의해 유발된 주도적 참여정신'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학교를 떠나거나, 학교에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이나 학교 내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상황은 'Disengagement'라고 표현할 수 있다. 릿키 박사는 하자센터와 함께 그를 초청한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에서의 강연을 포함해 방한 일정 중 세 차례 강연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청중을 'Engage'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고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청중의 주의를 끌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시했다. 유머감각을 최대한 발휘하거나, 작은 퍼포먼스를 주요 메시지와 연결시켜 실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 청중의 참가를 유도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사례를 적절하게 소개해, 자신의 강연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사례임을 강조했다. 또 청중의 반응에 따라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빛나는 이야기'가 듣는 이들의 맥락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경계했다.

둘째,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그 해결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의 선진 사례를 소개하거나 도입할 때, 특히 그 사례의 무대가 우리 사회와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 거의 즉각적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이번 경우에도 특히 인턴십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나 조직의 사회공헌, 기부 등의 문화가 발달한 미국 사회의 사례가 과연 한국에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여하튼, 미국의 리버럴한 교육 환경과 아시아의 '입시지옥' 국가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한국의 교육환경이 같은가?"라는 의문이 가능하다. 또한 하자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우리'와 '공공'을 돌봄의 시선으로 거두는 현재 시점에서 '자기주도적 인턴십 학습'의 사례가 우리에게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 3번에 대한 답을 잠시 보류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미국의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교육 환경'은 사실 신자유주의의 발호와 함께 과거 20~30년에 걸쳐 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징후가 있다. 부유층이나 아시아 이민을 중심으로 한 명문대 진학 열기와 이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치열한 입시경쟁,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 산업의 번성과 중산층의 교육비용 부담 증가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공교육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출감소가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배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자유로워 보였던 미국의 교육환경 역시 대량생산체제의 유능한 임노동자를 효율적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근대 교육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진정한 학습은 개인의 진정한 관심과 현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빅픽처의 교육철학은 여전히 매우 타당하고, 이는 한국의 경우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사회의 문제점, 즉 기업이나 조직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이상 인재의 육성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에게 '스펙 쌓기'의 부담을 전가하거나, 개인이 스스로의 경험 자본을 축적할 수 없는 불공정한 인턴십 환경을

강요하는 현상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미국사회의 상황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그곳의 상황이 한국보다 월등히 낫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즉, 이미 후기근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더 이상 우리의 교육보다 월등히 우호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면 메트스쿨의 사례를 한국과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난제'를 대하는 우리의 대응자세가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Perseverance - 불굴의 의지'이다. '귀차니즘'에 빠져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교사의 노력에 냉소를 보내며 무관심하기 만한 한국 청소년들의 예를 들며 '어떻게 청소년들이 흥미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라는 한국 교사들의 질문에 대해 릿키 박사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어보고, 끝까지 시도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불굴의 의지'는 결국, 그 노력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서 유발되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즉 학생이 자기의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줄 수 있었던 교사들은 '교육'을 자신의 천직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무한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 열정의 대상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학습과 실행 노력은 '불굴의 의지'로 뒷받침되고,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열정을 발견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은 일단 '가볍게' 현장에서 실행해 보는 것이다. 너무 많은 염려, 계획, 준비, 리스크 관리에 시간을 들이고, 완벽한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준비과정에서 이미 지쳐서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거나, 남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방향을 좇을 수밖에 없다. 무언가 관심분야가 될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실행해 봄으로써, 정말로 자신이 열정을 바칠 대상인지 증명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 가지 시사점을 곱씹으면서 다시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자 한다. 이는 릿키 박사를 초청하고, 메트스쿨과 빅픽처의 성과를 학습하고, 워크숍을 기획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던 질문이다. 하자의 시즌 2,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과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릿키 박사는 강연 내내 이 말을 반복했다. "Find your passion first, then you can be great" (너의 열정을 좇아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는 아마도 1999년에 오픈한 하자의 시즌1의 모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13년 가을, 조한은 그녀의 은퇴기념 심포지엄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Not consult your fear, nor consult your hope nor dream. Just consult your friend" (너의 공포와도, 너의 희망과 꿈과도 상의하지 마라. 네 친구와 상의하라).

그녀는 그 변화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한다. "우리/공공의 영역이 완벽히 실종된 이 시대에 나/ 개인의 꿈과 성공을 우선하여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추측컨대, 같은 맥락에서 그녀는 릿키 박사의 주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을 것이다.
“Find our passion, then we can be great” (우리의 열정을 쫓아라,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주장이 각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이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믿어버릴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어느 한쪽만을 택할 수도 없다. 모두에게 맞는 한 가지 정답은 없다. 결국 사회적, 개인적 맥락에 맞는 선택의 문제일 것이다.

사족으로 몇 가지 덧붙이자면 릿키 박사는 자신이 놓인 상황을 늘 기회로 여기고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는 해외출장을 거의 다니지 않는데, 자신의 메시지가 언어적 한계 때문에 잘 전달될 수 없을 것이 염려되기도 하고, 또 출장에 들이는 시간 등 비용에 비해 성과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 아마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자 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심, 즉 반쯤은 휴가 여행을 오는 기분이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 흥성한 한국에서 자신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칼리지 언바운드(College Unbound)를 오픈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보고 싶다는 동기도 있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그는 제대로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칼리지 언바운드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다. 또 언론에 노출되거나 서밋 개막강연 이외의 대규모 강연회를 열지도 못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 정도의 ‘거물’이 먼 거리를 움직인 것치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그리 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역사나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된 점, 그리고 작은 규모였지만 강연을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 교육자들과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했다는 점, 또 하자센터의 성과를 관찰함으로써 미국에 돌아가 새롭게 하고 싶은 사업의 몇가지 힌트를 얻은 점 등을 기쁘게 나누곤 했다. 하자가 그에게 영감을 준 지점은 대략 세 가지 정도였는데, 첫 번째는 ‘하자허브’나 ‘청년허브’와 같은 ‘허브’ 공간을 메트스쿨에 만들고 싶다는 것,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교과과정과 프로젝트 개발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느낀 점, 마지막으로 페스테자의 공연을 보고 학생들의 집단적 음악 프로젝트를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 점이였다.

여하튼 아직도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한다는 이 노운동가의 열정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하지만 나의 열정이든 우리의 열정이든, 열정이 없는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진로교육포럼 - 학교 안팎이 함께하는 진로교육

글 / 이정규(다담, 교육기획팀)

기획 및 진행

하자센터 교육기획팀

발제

배승태(공간민들레 길잡이 교사), 박은주(숨쉬는 도서관 코디네이터), 김수경(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총괄팀장)

패널

민현(헤어스타일 민현 대표), 김다운(지구마을 청년대학), 신상하(성공회대), 안상원(신수중학교 교사)

개요

학교 밖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실험적 진로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학교 안과 밖의 배움을 연결하는 창의적 진로교육을 위한 단초를 발견하는 자리로 마련됨

일시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10:00~12:30

장소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외 3개 워크룸

참여인원

교사, 지역 활동가, 청소년 활동가 등 80명



기획

학교 현장 안에서 진로교육을 진행할 때 난감함에 봉착한다고 다들 말한다. 청소년은 학교 안과 밖을 오가며 성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청소년 진로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했다. 대안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 현장에서도 진로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진로교과를 신설하고, 전환기 학교를 시범 지정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학교가 다루는 교과 안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자원과 시간, 공간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교사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이에 학교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학교 밖 배움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실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안과 밖의 배움을 연계하는 창의적 진로교육 발상의 단초를 만드는 기회를 마련했다. 향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교 밖 배움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교육이 학교와 연계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로 했다.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학교 안과 밖이 협력하며 구상하는 만남의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공사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학교 안팎이 연계하여 진로교육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겪는 난감함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아직까지 학교 안팎이 함께하는 진로교육은 실험단계이기 때문이다. 발표를 맡은 '공간민들레',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숨쉬는도서관' 모두 공교육과 연계하여 더 창의적인 진로교육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던 곳이다. 이들의 사례를 1부에서 공유하고 2부 테이블 미팅에서는 각 사례에 참여했던 다른 이들이 코멘트를 보태 더 심도 깊은 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간민들레(배승태 길잡이교사)'는 진로탐색 프로젝트 '길 위에서 길을 찾다'를 일반 학교 및 대안학교와 연계해 진행했다. '공간민들레'는 학교가 밖의 자원을 활용하여 차후에는 스스로 진로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있다. 2부 테이블 미팅에서는 현장으로 파견되었던 대안학교 출신 자원활동가들이 실제 진행할 때 겪는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을 나누도록 기획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김수경 총괄팀장)'는 청소년들에게 동네 인턴십을 제공하며 마을 전체가 진로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왔다. 헤어살롱, 카페, 화실, 제과점, 제빵업체 등 실제 현장을 학교와 연계해오고 있다. 2부 테이블 미팅에서는 동네 인턴십의 현장을 제공해온 헤어 스타일리스트 민현이 파트너십을 맺는 과정에 대해 사례 공유를 하기로 했다.

마지막 발제는 '숨쉬는 도서관(박은주 코디네이터)'이 맡았다. 마을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직업인들을 발굴해 청소년들이 그들을 만나는 방식을 ‘사람책’ 형태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목차를 가지고 읽어 나가며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2부 테이블 미팅에서는 ‘사람책’을 공교육에서 적용하여 진행한 신수중학교 안상원 교사가 운영 매뉴얼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진행

1부에서는 해당팀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학교 안팎이 연계된 청소년 진로교육이 진행되었던 과정을 청중 앞에서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해당 팀과 협업했던 이들을 섭외하여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관심사에 따라 대략 25명씩 팀별 워크룸으로 흩어져 네트워킹 시간을 보냈다. 여기서는 10분 정도 각 팀별 사례 발표자들이 협업과정을 공유했다. 학교 박현장과 연계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파트너를 만나는 방법과 그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2부 테이블 미팅에서는 발제자와 참여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공간민들레’ 테이블 미팅에서는 학교 안팎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물어오는 참여자들도 눈에 띄었다. 진로교육 담당을 맡고 있는 고흥빈 교사는 “내년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왔다.”면서 “이 자리에 오니 영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았던 공간민들레 배승태 길잡이교사는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좋겠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연결 루트를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자리가 그래서 귀한 자리다.”라고 화답했다.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테이블 미팅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청소년 인턴십을 위해 제공한 민현 대표가 사례 발표를 했다. 그는 “머리만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결부되어 있는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민현 대표에게 중학교 학생들을 현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주로 물었다.

신수중학교 안상원 교사는 ‘숨쉬는 도서관’ 테이블 미팅에서 학교 안에서 사람책 아이디어를 적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평범한 직업인들을 ‘사람책’으로 학교로 초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삶을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도서관 사서, 소방관 등을 섭외했으며, 특히 학부모를 사람책으로 초대했을 때가 인상에 남는다고 했다. 안상원 교사는 “떡 만드는 학부모는 처음에 자신 없어 하셨다. 학부모들이 가진 직업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해했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몸담고 있는 한 참여자는 “사람책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왔다.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박은주 숨쉬는 도서관 코디네이터는 “지속성을 위해서는 양쪽이 모두 얻는 것이 있어야 하기에, 참여자들이 스스로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주요 피드백

학교 안과 밖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싶었다. 학교 교사와 학교 밖 진로교육 단체 모두 서로를 필요로 했다.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쉽사리 첫 걸음을 떼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번 포럼은 만남으로 그쳤지만 앞으로 이 만남이 새로운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기대해본다. 포럼 참여자들은 학교 안팎이 만나고 함께하는 과정이 난감하고 어렵다는 현실을 공유했다. 그래도 서로가 필요하고, 힘을 합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들의 후기를 남긴다.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 연결되는 건 어렵지 않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김태준)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지향점을 나누고 가는 것 같다. 우리 역시 너무나 만나 뵙고 싶었다. 현장에서 진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고 싶었다. 같은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 (공간민들레, 배승태 길잡이교사)

학생들이 미용실 현장에 들어와 일하게 한다.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어릴 때 이발소만 다니다가 우연히 미용실에 가본 후 진로가 바뀌었다. 그 때를 기억하며, 학생들과 함께한다. (헤어 스타일리스트 민현)

우리가 지역의 기관을 만날 때는 우리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는다. 학생도 중요하고, 지역의 일하는 분들, 또 학교도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터전인 직업 공간을 온전히 하루 내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기꺼이 허락해주신다.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김수경 총괄팀장)

하자의 7가지 약속 중 ‘정보 공유에 치사해지지 말자’는 말을 보았다. 학교 내에서 진로교육 또한 성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유하기에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하자의 약속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운영과정들을 보여줄 자료들을 나눠드리겠다. (신수중학교, 안상원 교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힘들어한다.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책들은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과 대화하며 그들의 삶,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편견은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은 편견을 깨고 낮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정답 없는 삶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 즉 '사람책'이 필요하다. (숨쉬는도서관, 박은주 코디네이터)

전환

학교 안과 밖이 만나 머리를 맞대어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해 협력할 때, 진로교육에서 마주치는 난감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거라 기대한다. 진로교육포럼 '학교 안팎이 함께하는 진로교육'에서는 학교 밖에서 연계하며 청소년 진로교육을 실험해 왔던 사례를 공유했다. 그 가능성과 어려움 모두를 나눴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학교 안과 밖이 만나 청소년 진로교육을 공동기획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연대

하자센터 교육기획팀 사업을 구성하는 '실험과 확산, 플랫폼'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이번 진로교육포럼은 '플랫폼'을 담당하였다. 토요일학교에서 하자센터 교육기획팀이 진행하는 '실험'을 보여주고,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에서는 하자 진로교육의 '확산'을 알려준다면, 이번 포럼은 학교 안팎에서 함께하는 진로교육을 고민하는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인 '플랫폼'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 서밋 기간 중 '청소년 진로 섹션'에서 만난 교사들을 모아 진로교사 모임을 만들 기반을 마련한 자리이기도 했다.

하자센터에 오면 청소년 진로교육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참가자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게 일차적인 성과일 것이다. 1부는 학교 안팎이 연계하는 다양한 진로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리였다. 2부에서는 76명의 참가자들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로 타진하였다.

다만 발제를 맡은 팀과 참여자들 간 네트워킹은 활발히 이뤄졌으나 정작 주최측인 하자센터와 참여자들 간의 교감은 다소 부족했던 것이 한계로 남았다. 이는 차후 모임 등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일 것이다.



진로교육워크숍 1. 일일직업체험을 통한 발상전환

글 / 인수진(절미, 교육기획팀)

기획 및 진행

교육기획팀

진행

김진욱(바다, 교육기획팀) 인수진(절미, 교육기획팀)

강사

목공하자(박활민, 송수린, 이한솔), 게임만들자(이창호),
영상하자(박섯별)

개요

하자센터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진로교육 담당 교사
또는 교육행정가를 대상으로 한 ‘교사 체험의 날’ 워크숍. 교사가
아닌 학생의 시선으로 하자센터의 일일직업체험을 직접 경험하면서
‘경험을 통한 학습’ 방식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시간

일시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10:00~13:30

장소

하자센터 신관 201호에 집결 후 개별 프로그램 공간으로 이동

참여 인원

22명(목공 9명, 게임만들자 5명, 영상하자 8명)



기획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수의 학교들이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하자센터를 찾는다. 일일직업체험의 참여를 위해 찾아오는 인원만 매달 1천
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 이에 교육기획팀에서는 하자의 진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일일직업체험을 교사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일직업체험의
기대효과와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학교와의 연계지점을 찾고자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

일일직업체험은 강의식 이론수업이나 단순 견학 위주의 진로 프로그램에서 발상을
전환, 일에 대한 열정과 보람을 가진 전문 직업인과 만나 ‘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힘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직업 멘토라 할
수 있는 강사와의 대화와 워크숍 형태의 체험을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동안 하게
되며, 20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2인 이상이 협동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교사들 역시 학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다만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와 오리엔테이션
등이 필요한 관계로 수업시간은 전체 90분으로 이론 수업을 30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프로그램은 직업 멘토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의 수업 위주로 선정, ‘목공하자’
‘게임만들자’ ‘영상하자’ ‘분장하자’ 등 총 4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모집인원은
프로그램 별로 최대 10명을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여 강사들은 이 워크숍을
위한 새로운 수업계획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자 스태프들과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의 기획의도와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

참여자 모집은 그동안 일일직업체험 프로젝트를 신청해 학생들을 인솔해온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이메일을 발송하고,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크게 두
가지 루트로 이뤄졌다. 그러나 학교 정규수업이 있는 금요일 오전 10시라는 시간대의
문제 때문인지, 신청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분장하자’의 경우 메이크업을 지워야
하는 불편함 때문인지 신청이 크게 저조해 워크숍 하루 전인 10월 24일에 폐강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의 신청인원도 모두 8명 안팎. 워크숍 당일 날씨가
꽤 추울 것이라는 예보까지 있어서 준비하는 마음은 더욱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일 아침 10시가 되자 신관 201호에는 거의 모든 신청 인원이
참석해 5분 가량만 지체한 뒤 바로 워크숍을 시작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는 전북
남원, 강원 원주 등에서 먼 걸음을 해주신 이들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세 팀으로 나뉘었지만 우선은 한 장소에 모여 공통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바닥이 원목 마루로 되어있는 신관 201호에 반원 모양으로

의자를 배치하고 이동 스크린을 설치했다. 무용연습실 용도로 만들어져 거울로 되어 있는 벽면에는 참가자들이 신청 당시 작성한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고민’과 ‘워크숍에 기대하는 바’를 프린트하여 게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세팅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전체 회고 자리에서 서로의 생각에 공감 스티커를 붙이고, 고민에 대한 각자의 해결책, 노하우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 댓글 형식으로 붙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개별 워크숍 공간은 평소 학생들의 수업이 주로 이뤄지는 곳에서 동일하게 진행, 최대한 실제 비슷한 환경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만, 평소에도 20개 프로그램이 고정된 작업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점, 대부분이 전문 직업인의 작업공간으로 느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웠는데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도 공간 보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숍이 끝나고 점심식사를 위해 ‘서밋 나눔부엌’으로 이동하는 시간에는 개별 공간에서 움직이는 동선을 활용해 하자의 주요 공간을 소개하는 투어를 약식으로나마 진행했는데 교사들의 반응이 꽤 좋았다. 직업체험을 통해 하자를 짧게 경험하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하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밋 나눔부엌’에서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식기를 설거지한 후 다시 처음 모였던 신관 201호로 이동했을 때는 이동식 스크린을 치우고 의자를 커다란 원형으로 배치해 서로를 마주볼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꿨다.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회고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전환

일일직업체험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솔교사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참여 교사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학생들과의 소통지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회고했다. 또한 강사들의 수업방식이나 일에 관한 스토리를 풀어내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목공하자’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수업을 열어줬던 활(박활민)의 강의를 듣고, “목공작업을 하는 내내, 상품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생산은 기쁨이었다.”라고 했으며, 하다(송수린)가 일을 시작하게 된 스토리를 통해 “전환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이고, 성장임을 배웠다.”라고 회고했다.

‘게임만들자’에 참여했던 교사는 “학생들이 워낙 게임을 좋아하니까, 학생들과 친해지려고 게임 워크숍을 선택했는데, 정말 재밌었다. 게임을 만들어보고 체험해보니까, 아이들 마음을 딱 알겠더라. 강사였던 로봇이 게임이 나쁜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습관이 나쁜 거란 얘기를 해주면서, 학생들한테 인생레벨을 이야기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15살이면, ‘지금 네 레벨에서 16레벨이 되려면, 어떤 연습을 하고, 어떤 스킬을 얻어야 할 것 같나’라고 물으면 금방 이해를 한다더라. 그런 접근이 크게 와 닿았다.”

‘영상하자’에 참여했던 교사는, “지난번에 학생들과 직업체험을 왔는데,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다. 직접 받아보니까 아이들 심정이 이랬구나 싶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작업을 했는데 좋은 시간이었다. 카메라를 직접 만지면서 촬영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 다만, 영상제작을 하는데 2시간은 좀 짧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 밖에도 “학교로 돌아가면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책상과 의자를 목공작업으로 만들어보는 수업을 하고 싶다.” “교사가 먼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찾아 나서야 할 듯! 인터넷 조사, 견학, 책, 교사 먼저 체험, 무작정 전화해보기, 해보려 합니다.” 등 새로운 시도와 도전의 의지를 보이는 피드백을 주었다.

연대

워크숍 신청 당시 ‘청소년 진로와 관련해선 당신의 고민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나왔던 답 중에서, 가장 큰 공감을 얻은 것은 ‘청소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장이 적고, 대부분의 체험들이 하나의 활동으로 끝나 연결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이날 교사들에게서는 ‘하자가 학교에 와서 직업체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여전히 많이 나왔다. 하지만 찾아가는 직업체험 역시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일회성 체험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학교의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체험 전후로 학교와 하자가 함께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전·사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각자의 고민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에는 “학교에서 영상을 가르치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국어, 역사 등 다른 과목 선생님들과 연계할 고민한다. 학교에서도 타 과목과 서로 연계하는 진로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제안과 “도구를 준비하고 공간을 확보하면 필요한 것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겠다. 내년엔 특성화고에서 청소년들과 ‘작은 집, 은밀한 공간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한다. 학교 안에 작은 공간,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서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어떻게든 풀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등의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워크숍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묻는 질문에는 많은 교사들이 “고민과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제 학교 안팎에서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교사들의 연대는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서밋기간 동안 계속될 다른 진로교육 워크숍과 포럼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후속모임을 약속하는 것으로 자리를 마감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하자센터에는 직업체험 참여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사들이 방문한다. 이 2시간의 짧은 만남이 지속적이고 공고한 파트너 관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직업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들과 함께 나눌 일을 고민해야겠다. 그리고 향후 하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캠프와 모임에 교사들을 꾸준히 초대하고, 반기고, 만나야겠다.



진로교육워크숍 2. 토요진로학교 사례공유 : 직종 선택에서 삶의 태도로

글 / 손민정(브리스, 교육기획팀)

기획 및 진행

하자센터 교육기획팀

발표

손민정(브리스, 교육기획팀)

논평

김영삼(서울특별시 성동교육지원청 장학사),
진미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개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치를 두고 일하는 현장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제작 워크숍으로 구성된 하자센터 토요진로학교의 2개 프로젝트, '버려진 동물을 위한 [] 제작 프로젝트'와 '가치 있는 일 만들기 : 지구를 살리는 일, "쓸모"를 만들다' 사례를 공유하고, 참여 교사들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해본 자리

일시

2013년 10월 26일 13:30~16:00

장소

본관 999클럽

참여 인원

41명(일반학교 교사, 대안학교 교사, 청소년 단체, 시민단체, 진로기관 등)



기획

'토요진로학교사례공유 : 직종 선택에서 삶의 태도로'는 개인적인 검사를 통한 적성 파악 및 기호에 기반해 직업, 직종을 매칭하는 일반적 방식과 단순체험에서 벗어나 6~10주의 주제 중심 통합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를 공유해 보기로 했다. 또한 참여한 이들과 함께 진로교육 콘텐츠의 내용적 전환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때문에 일반학교 교사들을 주 대상으로 설정했으나 진로교육의 변화를 고민하는 대안교육 교사 및 활동가, 연구자들도 두루 초대했다. 교육현장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함께 잘 살지'로 질문이 전환되면 좋겠다는 희망, 그리고 이를 위한 실험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세팅했다.

진행

지난해 진행되었던 토요진로학교의 사례 공유가 먼저 이어졌다. 참여하면서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현실적인 상황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게 된 참여 청소년들의 글이 소개되었다. 하자센터 교육기획팀 브리스는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했을 때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여 청소년들이 변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흥미로 시작했던 것이 자기 삶과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면서 무엇을 바라볼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왜 우리가 학교 밖 현장으로 청소년들을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으로 만나는 장에 그들을 내놓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조금의 기회를 준다는 뜻이 될 것이다.

토요진로학교 사례 공유 이후에는 김영삼 성동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의 논평이 이어졌다. 김영삼 장학사는 '서울의 500여 개 중고등학교가 직업체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교사들이 실무, 실행 단계의 고민이 아니라 진로교육을 왜 하는지 좀 더 본질적으로 고민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당장의 실현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부터 경계를 넘는 용기 있는 시도를 많이 해봐야 한다고 권했다.

그의 논평 중 일부를 인용한다. "누워서 침뱉기를 해보겠다. 나는 내가 익숙한 것만 했다. 초중고, 대학을 다니며 공간을 이어가면서 학생으로 있다 교사로 역할만 바꿨다. 나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삶을 바꾸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중략) 많은 선생님들이 나와 비슷한 경로로 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수많은 삶과의 만남에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렵다. 그간 살아온 삶의 방식과 교육의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 힘들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것을 넘어서는 교육과 실행이 선생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전환과 연대

보통 '사례 공유'는 직접 체험하는 방식 또는 구조 설명과 리뷰를 담은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워크숍에서 소개된 토요일진로학교 사례는 긴 회차로 진행된 것이기에 전체 수업 방향과 약속 등을 교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2차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공동 워크숍의 경우 단시간에 다양한 의미를 짚어내는 방식으로 시각을 넓혀 주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후 진행된 두 전문가의 논평은 일선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교사에 대한 진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많은 교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입체적으로 진로를 바라보고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어른들과 함께 해보는 '프로젝트형 진로교육'의 의미와 내용을 공유하고, 학교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갈 지 나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는 평가이다.

2부 교사들간의 논의는 기획 초기에는 일반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20명 정도만 초대해 실질적인 연계를 고려한 파트너십 찾기를 목표로 진행하려 했으나 모집 단계에서 신청이 밀려들면서 진행 방식을 변경했다. 사례 자체를 공유하고, 현장 교사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연결 지점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을 최소 목표로 설정하고 팀별 논의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애초 설정한 2014년 연계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례와 관련된 현장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되었다. 특히 참여교사들 간의 대화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의 연결이나 공통의 키워드를 뽑아낼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교사들은 토요일진로학교 사례 공유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진로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피드백을 내놓았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로교육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 활동을 보니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답을 학생들과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앉아서 머리만 써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함께 어우러진다는 면, 또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형으로 하나의 완결된 프로세스를 경험한다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의 고민을 딛고 앞으로의 과제를 향한 의지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쓸 수 있는 자원과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해보자!"며 의욕을 보이는 반응들이었다.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연결해 수업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 보겠다, 프로젝트 전반을 코디네이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번 워크숍처럼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다. 특히 일반학교 교사들은 현장에서의 진로교육은 단순 직업체험과 성공한 직업인 강연 등이 주류인데 이는 1~2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대안교육과 협력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라이프디자인캠프 쇼케이스

전환을 위한 움직임

글 / 조유나(가비, 공방팀)

기획 및 진행

하자센터 허브팀, 공방팀

발표자

라이프디자인캠프 참가 청소년 6명, 판돌 5명 등 총 11인

개요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삶터, 놀이, 이동, 먹거리에 대한 다채로운 생활기술을 배우며 일정기간 삶을 전환해 본 라이프디자인캠프의 사례 발표. 자급의 의미, 몸의 감각 되살리기, 이동의 즐거움, 생태적 감수성 등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성찰하고 나름의 답을 찾아본 이번 캠프를 통해 향후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자리로 기획됨

일시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13:00-15:00

장소

하자센터 신관 203호 & 허브 갤러리

참여 인원

70명



기획

2013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9일 동안 26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한 라이프디자인캠프(이하 라디캠)는 생태감수성, 자급/자생/자활, 나눔과 돌봄, 공감과 협업 등 지속가능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키워드를 어려운 담론이 아닌 몸과 손을 움직이는 활동, 즉 생활기술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 도시형 청소년 캠프이다. 이번 쇼케이스는 라디캠의 내용과 참가 청소년들의 소감을 학부모, 교사들과 공유하고 향후 본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을 타진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먹거리(요리/텃밭과 재래시장), 놀이(음악과 춤/생활체육), 자전거(집자전거와 트레일러 만들기), 목공(나무집 만들기), 바느질(폐현수막을 활용한 앞치마 만들기/수저집 만들기), 휴면에너지를 사용한 이동(도보 및 자전거),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캠프의 주요 내용은 생활 속에서 인류가 자연스럽게 해왔으나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생소하고 가치를 잃어버린 것들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야 하는 활동들이기도 하다. 평소 쓰지 않았던 손과 몸을 쓰고 개인 작업이 아닌 친구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의 것을 만들어야 하는 라디캠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는지, 참가 청소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본 쇼케이스의 핵심이었다. 이와 더불어 캠프기간 매일의 활동사진과 리뷰, 만들어진 것들을 전시한 갤러리, 작업 공간 투어 및 관객과의 대화로 쇼케이스를 구성하였다.

진행

이번 쇼케이스의 성과 혹은 특기할 만한 점은 다름 아닌 완두(라이프디자인캠프 참가 청소년)들의 참여도이다. 쇼케이스를 기획할 당시, 완두들이 참석할지, 참석한다 해도 발표를 하고자 하는 이가 있을지 등 모든 것은 예측할 수 없었다. 17세부터 19세 청소년들이 학기 중 총 9일(체험학습일 7일 + 공휴일 3일)을 할애해야 하기에 참가자 모집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참가 신청자가 36명에 달했고 그 중 참여 자발성/전일 참석가능/이동의 용이성/기타(지역/학교/성별의 안배) 등을 고려해 26명의 완두들을 선정하고 9일간의 캠프가 진행되자 본 쇼케이스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캠프 마지막 날, 자신들의 경험과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음을 알리고 워크숍별로 발표자를 정하자고 하니 완두들은 이런저런 조율 끝에 6명의 발표자 그룹을 만들었다. 쇼케이스 전날까지 발표자가 변경되고, 어떤 내용을 들려줄지 가지(캠프 스태프/판돌)들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행사 날이 다가왔다.

쇼케이스 당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4명의 완두를 제외한 22명의 완두들이 모두 모였고, 몸을 쓰며 보냈던 9일 동안의 친밀도와 협업의 효과일까? 완두들은 제각기 알아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떡을 접시에 담고, 의자를 세팅하고, 관객들을 안내하고, 방명록을 받고, 발표자 완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소감을 가감 없이 들려주었다. 일상의 작은 변화, 생태에 대한 생각, 친구를 만나고 우정이 생기는 순간,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협동의 느낌, 몸과 손을 쓴다는 것의 기쁨 등 완두들이 직접 발표한 소감은 '전환을 위한 움직임'으로서 라이프디자인캠프가 기획 의도대로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하였고 이 시대의 청소년들(혹은 연령대를 불문하고)에게 이러한 활동이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발표가 다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관객 중 한 분이 “다음에 또 이 캠프가 있다면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를 묻자마자 모두 함께 손을 들어 올리는 완두들. 이 장면은 완두, 가지, 관객들에게 훈훈함을 안겨 주었다.

-오세창(체리, 선부고등학교 1학년) / 목공워크숍 발표
저희는 이 캠프를 통해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태껏 학교에서 수업만 듣다가 목공이란 걸 처음 접해보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무집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목공이라는 게 만들었을 때에 성취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목공 작업을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조를 이루며 활동을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관계도 더 좋아지고, 자기가 실수하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기 일에 충실해지고 집중하게 되었고요. 서로 의견을 말해가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함께 맞춰가야 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취감도 크고, 자기가 만들었던 생각에 자랑스럽고, 다음에는 집 말고도 다른 가구나 물건을 만들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목공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정말 유용한 직업 같아요.

-박채수(핑크수달, 세경고등학교 1학년) / 자전거 워크숍에 대한 발표
첫 날 자전거공방 친구들이 모여서 폐자전거를 분리했어요. 첫 날 카고 바이크랑 트레일러 사진을 봤는데 ‘우리가 저걸 어떻게 만드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리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협동이 됐어요. (중략) 자전거공방을 통해 느낀 건 제가 평소 의지가 부족한 학생인데 ‘아, 불가능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김지우(지우, 여의도여자고등학교 2학년) /하자센터에서
노들섬까지의 이동에 대한 발표

힘들지 않게 노동요를 불러준 예능 팀도 있어서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엄청난 오르막길과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기둥을 만났는데, 다 같이 집에 달라붙어 끌고 갔어요. 거의 도착할 때쯤에는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도 했어요. 뿌듯해서 이제 도착했다는 해방감도 들었어요. 끌고 가면서 난 이렇게 열심히 끌고 가는데 편하게 가는 완두들이 밋기도 했지만 도착했을 땐 다들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저 혼자 했다면 8.7km를 가는 건 꿈도 못 꾸고 몇 배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완두와 가지가 있어서 도전할 용기도 생기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심적으로는 뿌듯하고, 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공부얘기만 하고, 숫자로 내 자신이 평가된다는 것,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라디캠을 하면서 요즘 말하는 힐링도 됐고, 생각하는 면에서 여유를 갖게 되어서 좋았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환

본 쇼케이스의 성과는 다름 아닌 완두들의 끈끈한(?) 연대와 작은 생각들의 전환이다. 다음은 설문조사를 통해 들여다본 완두들의 생생한 이야기, 전환 의지이다.

직업, 진로 부분에 대한 생각의 전환

-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해야 할 일도 하자. 학교 외에도 많다.
- 캠프를 참가하기 전에는 미래에 대해 별 생각을 안했지만, 캠프를 참가한 후 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성숙해진 것 같다.
- 무작정 공부가 아닌 나의 적성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치관 및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의 전환

- 생각이 좀 더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졌다. 틀 안에 갇힌 생각이 아닌 열린 생각.
-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마음속에 또 하나의 재미를 갖게 됐다.
-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 참가 전에는 개인주의라면 지금은 협력, 즉 공동체다.
- 낭비하지 말아야겠다.

생활패턴 및 습관에 대한 전환

-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 같다.
- 10시까지 시간을 맞춰서 와야 했는데, 이제 시간 약속을 잘 지키게 될 것 같다.
- 좀 더 부지런해질 것 같다.

취미생활 및 손 작업에 대한 생각의 전환

- 계속 뭘 만들려고 시도한다(실패하겠지만, 쟀)
- 취미생활? 이제는 좀 활동적인 것으로,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만드는 것으로.
- 친구를 폭넓게 사귀자. 악기를 배우자. 자전거를 타자.

마음가짐에 대한 전환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야겠다.
- 삶의 여유를 갖자.
-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이 여유로워졌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졌다.
- 자유로움과 즐거움, 호기심, 새로움이 생겼다.
- 섬세해진 것 같고 남을 위하는 생각이 생겼다.

연대

완두들의 소감 발표 후 이어진 관객들의 질문과 소감은 향후 라디캠이 더 다양한 연령대에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학부모 한 분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며 그 강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앞으로 라디캠의 숙제일 것이며 그 첫 단계는 바로 라디캠 1기 완두들 간의 연대 그리고 완두들과 하자와의 연대일 것이다. 20여명의 완두들이 앞으로 진행될 라디캠의 선배, 혹은 스테프로 2기를 맞이한다면 라디캠이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이 함께하는 이들의 일상 속으로 스미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하자의 고찰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의 소감을 짧게 옮겨본다.

-윤중서(대학생)

개인적으로 캠프 소감을 들으며 감동이 컸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방학숙제로 만들기를 많이 했는데,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손으로 하는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던 것 같네요. 이번 캠프를 보니 직접 손과 몸을 사용하고 그 속에서 친구들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중략) 이 캠프는 친구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헤어지기 싫어 눈물나는, 그런 캠프였던 것 같아요.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배우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캠프인 거죠. 그런 게 창조적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감수성이 친구들, 가족들 등 주변에 전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와카츠키 치요(빈즈 후쿠시마 이사장)

일본 후쿠시마에서 왔습니다. 아까 일본말로 인사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 같네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좋은 경험을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획과정에서 내용(캠프의 진행 결과/발표 완두 등)의 불확실함은 함께 하는 팬들들로 하여금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유연성, 융통성, 강렬한 연대를 가능케 하였다. 다소 비약이 있겠으나 라디캠 본 쇼케이스는 주 대상인 완두들에게만 메시지나 감동을 준 것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았나 싶다.



오픈토크 - 산업시대의 교육에서 퍼머컬처(Permaculture) 교육으로

글 / 이진아(떠비, 학교운영팀)

기획 및 진행

학교운영팀

개요

산업화 시대의 교육 모델로부터 지속가능한 삶과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적 교육모델로의 전환에 대해 고민해 본 포럼. 인간을 길러내는 과정은 농부가 작물을 키워내는 것과 같은 애정과 돌봄을 요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 농사는 유사한 관점과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에 양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는 이야기 자리로 꾸며졌다

발표

수잔 블룸(노트르담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패널

정진영(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 가락고등학교 교사), 김광철(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서정초등학교 교사), 오창균(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일시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17:00-19:00

장소

하자센터 신관 203호

참여인원

62명



기획

수잔 블룸은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서 동아시아 및 중국문화와 교육 문화인류학 전문가이다. 그는 인간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농문화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퍼머컬처 방법론(Permaculture Methodology)'을 적용하여,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교육 모델로부터 지속가능한 삶과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적 교육모델로의 전환에 대해 고민해 오고 있다. 인간을 길러내는 과정은 자연과 더불어 농부가 작물을 키워내는 것과 같은 애정과 돌봄을 요한다는 점에서, 교육과 농업에 유사한 관점과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비유의 차원이 아니라 자연환경, 생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오래된 좋은 일', 농업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도 한다.

산업화 시대의 관행농업과 정규교육은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여 균일한 작물/노동자를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나, 오늘날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천 년의 인간 역사를 지탱해온 '농문화'에서 그 원칙을 도출한 '퍼머컬처' 개념을 통해 대안적인 생태농업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잔 블룸은 농업뿐 아니라 모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적용 가능한 '퍼머컬처' 원칙을 교육에 적용해 새로운 모델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번 오픈토크에서는 이러한 예로 들 수 있는 전세계 대안적 교육 모델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한국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대안적 교육 모델, 특히 생태와 환경 교육, 농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에 집중해 보았다.

진행

수잔 블룸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오픈 토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지속가능한 농업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이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설명하면서, 블룸은 식물을 기르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의 메타포를 이용한다. 아이는 식물로, 학교는 정원으로 비유하면서 블룸은 농업과 두 가지 형태의 교육방식에 대해 비교한다.

첫 번째는 산업적, 공업적, 공장제 농업이다. 사육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잔 블룸은 먼저 이러한 형태의 생산이 갖는 특징을 설명한다. 효율적이고, 획일적이고 예측가능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반면 폐수가 나오고, 비료를 필요로 하며, 토양의 영양분은 소실된다. 이는 공장제 농업의 특징으로서 에너지 집약적이고, 단일 작물만 생산하며, 생산품들의 품질이 낮다. 모든 장비는 단일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러 수잔 블룸은 공장의 외관을 닮은 학교 사진을 보여주었다. 미국 교육계에는 'Common Core'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단일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고, 이후 테스트를 하면 마치 옥수수를 테스트하듯이 단일한 내용의 결과물이 나타난다. SAT 등이 그렇다. 한국에서도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 이러한 교육을 중시하다보면 획일화된 것을 강조하게 된다. 공장제 농업도 마찬가지로 평가한다. 모든 생산품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장과 같은 학교는 아이들을 기계에 밀어 넣는다. 물론 공장제 모델의 이점도 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아이들을 시스템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생겨난다.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고, 고통받으며,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뭘 많이 배우는 것도 아니다. 전통적인 교육 모델은 관료주의적인 모습이다. 규칙, 효율성, 하향적 작업 방식. 선생님들이 항상 무대에 있고, 결과를 생산해내고, 학생들은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한다. 미셸 푸코는 학교, 병원, 공장이 감옥과 닮아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잔 블룸은 또 다른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한다. 바로 농업시대 교육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그는 설명한다. 유기농업에서 모든 것은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퍼머컬처 플라워는 퍼머컬처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을 모아놓은 그림이다. 단순히 한 명의 사람, 장소, 농작물을 기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폐기물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정의(justice)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맞물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교육이란 무엇일까? 수잔 블룸은 앞에서 살펴본 농업 원칙 중 몇 가지를 적용시켜 제시한다. 첫 번째는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라는 원칙이다. 아이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학습한다. 다양한 문화에서 길러진 아이들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에너지를 포착하고 저장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에너지 과잉은 보통 문제로 여겨지지만, 어쩌면 그게 해결방법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뭔가를 얻는 것이다. 농업에서 보면 과일을 생산한다든가 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또 다른 원칙은 쓰레기를 생산하지 말라는 것이다. 농업에선 퇴비, 교육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다른 시각으로 알아봐주는 게 필요하다. 분리하기보다는 통합하라는 원칙도 있다. 식물들이 다같이 어울려 자라는 것처럼 다른 연령대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게 하면 어떨까? 또 다른 원칙, 다양성을 활용하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라. 획일화를 추구하면 다양성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있어 좋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코스타리카의 어스 대학, 미국 듀크 유니버시티 그리고 하자작업장학교 등 이런 원칙으로 교육하는 학교들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수잔 블룸은 퍼머컬처의 가치를 중시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패널로 참여한 김광철 교사는 먼저 한국의 교육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전반적인 한국 교육계는 보수적이고 혁신학교에도 부정적이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 기후변화, 식량과 자원 고갈 등을 고민하지도 않는다. 그는 청년문제라든지 학생인권, 남북평화, 나눔, 배려와 협력 등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가치들이 구현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진영 교사는 자신 또한 '공장제 학교'의 교사로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교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몸담고 있는 가락고등학교를 생태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그는 4월에는 러시아에서 온 생태운동가의 강의를 듣고, 5월에는 강화도에 가서 생태학교의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고, 횡성에 모내기를 하러가 지역 공동체와 생명농업을 배우기도 했다. 4년간 꼬박 김장을 해온 그의 목표는 농업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주로 농사교육을 다니는 오창균 교사도 패널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퍼머컬처 모델을 학교에 적용해 보려고 하였으나 5년 전에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 이후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가 가르치려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감수성이다. 생태적 감수성, 다양성 등.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오줌을 모으는 등의 노력들이다. 학생이 부모님을 설득해 주말농장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도시텃밭의 목표로 자급자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과의 상호작용까지 시야를 넓히는 것을 잡고 있다.

전환과 연대

패널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 말을 보탠데 이어 수잔 블룸은 사회를 맡은 임덕연 교사의 질문 '비화폐적인 공동성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그는 뉴욕 주에 자리잡은 생태 공동체 이타카에서 쓰이는 돈의 예를 들며 화폐가 없는 커뮤니티, 대안화폐를 가진 다양한 커뮤니티를 설명했다. 또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며 그는 단순히 화폐의 유무가 아니라 교환, 의무, 연대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종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청소년 공개대담 with 수잔 블룸

지속가능한 배움과 삶

글 / 이은수(은수, 학교운영팀)

기획 및 진행

학교운영팀

발제

수잔 블룸(노트르담대학 인류학과 교수)

개요

교육을 농사에 비유하는 수잔 블룸 교수와 대안학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한 공개대담. 수잔 블룸 교수가 간단한 토론 주제를 제안하고, 청소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일시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15:00-18:00

장소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참여인원

100명



기획

미국의 인류학자 수잔 블룸(Susan Blum)은 교육과 농사에 대한 비유를 통해 근대교육이 대규모기술집약적 농업처럼 진행되어 왔으며 농약과 유전자조작, 성장촉진제 등을 남용하면서까지 소득에만 골몰했던 흐름의 대가를 치르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근대농업은 근대산업의 일부로서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핵심에 충실해왔고, 노동(자)를 소외시키며 자원과 자연을 수탈하는 형식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결말로 진행되어 왔음을 주목한다. 농업분야를 시작으로 ‘퍼머컬처(Permaculture)’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삶의 전반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잔 블룸은 퍼머컬처와 교육을 연결하여 꾸준히 여러 제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초대된 청소년들은 생태적인 이슈에 관심과 실천을 기울이는 그룹으로서, 적게라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유기농 농사수업 등을 통해 이미 ‘유기농부’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개 교육을 농사에 비유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하나의 가능성인 ‘씨앗’으로 위치하게 되지만, 이번 대담에 초대된 청소년들은 ‘유기농부’로서 교육(학습)을 어떻게 다시 생각해볼까, 농사라는 교육의 형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생각의 지평을 갖게 했을까,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어떻게 서술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량생산시스템을 주도하고 세계로 확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시대인식과 비평을 해오고 있는 인류학자 수잔 블룸과 만나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해보는 대담 형식의 자리로 기획되었다.

진행

중심 원탁에 수잔 블룸과 페차쿠차(이 시대의 교육포럼 2-에너지와 나의 성장 이야기)에 참석하는 발표자 및 소속 학교 청소년들이 앉아서 발제와 토론을 하는 공개 좌담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수잔의 요청으로 좌담회의 형식이 아닌, 청소년들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소그룹 토론, 발표, 질의응답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120명에 달하는 참석자 가운데 대부분은 하자작업장학교, 성미산학교, 푸른숲학교, 샨티학교 등 대안학교에서 온 청소년들이었고, 일반 학교인 송문중학교의 환경동아리 멤버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한쪽에는 일본에서 초대된 빈즈 후쿠시마(Beans Fukushima) 대표들을 비롯해, 생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대안학교 교사들, 교육자, 활동가 등 어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다만, 청소년 대담이라는 기획의도에 따라 발언의 기회는 청소년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른들의 발언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수잔 블룸은 발제를 하는 대신에 간단한 토론 주제를 제안하고, 청소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잔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 배웠던 것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이었는데 하자작업장학교의 학생들은 밀양에서 어르신들을 도와 감을 따던 경험을 얘기해 주었다. 손과 몸을 움직이고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기에 특별한 배움이었다고 말했다. 곧이어 청소년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객석과 진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객석 전체가 주체로 바뀌어 활기찬 토론의 장이 열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것 중 가장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컴퓨터 게임.”
 “논어”
 “만약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흥미가 없는 공부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과학 같은 걸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관심사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무엇이든 그것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이라면 화학이나 영양소, 미생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요리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일반 학교같이 체제가 확실한 곳에서는 어렵긴 하겠지만 최대한 자기가 속한 공간에 대해, 배우는 학습과정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져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환과 연대

이번 대담은, 학교나 학원처럼 주어진 교과과정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움을 설계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주한 고민의 지점을 나누며, 서로 조언을 주고받고, 대안을 같이 의논해 보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수잔 블룸은 두 아이의 부모이자 30년 넘게 학생들을 만나왔던 교육자로서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인류학자로서 한국 청소년들의 대담을 귀담아 듣고, 관찰하는 진행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수잔의 발제를 생략했기 때문에 ‘퍼머컬처와 교육’에 관한 그의 주제를 청소년들과 공유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다. 처음에 이런 논제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에 ‘농사 또는 생태적 실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는 주체성이 부각되지 않은 채, 보편적인 청소년들의 학교, 배움, 꿈에 대한 대화로 흘러가게 되었다. 하지만 3시간 동안, 120여 명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학습하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과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창의서밋에서 중요한 키워드였던 ‘연대’의 의미를 충족할 수 있었다고 본다. 대안학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청소년들까지 다함께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담에서는 확실한 주제를 정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 특히 대안적, 생태적 실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닌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면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번 기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더 깊게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다음 모임에서는 각자 현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로서 ‘지속가능한 배움’이란 무엇인가 등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계획하고자 한다.



이 시대 교육포럼 1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의 교육

글 / 김유리(유리, 학교운영팀)

기획 및 진행

학교운영팀

사회

박복선(성미산학교장)

발제

와카츠키 치요(일본 빈즈 후쿠시마 이사장), 나나우미 요시오(일본 빈즈 후쿠시마 청년사업 '젊은이를 위한 서포트 스테이션' 총괄 코디네이터), 강내영(지역 퍼실리테이터)

패널

함원신(도리마을학교 산촌유학센터장, 경주해안전연대 공동대표), 신경준(태양의 학교 대표, 송문중학교 교사, *태양의 학교는 '책없는 세상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 공동행동'의 별칭),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개요

국내 대안교육현장들이 함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 그리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기 위해 마련됨. 특히 현재 후쿠시마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빈즈 후쿠시마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생태적 전환에 대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기획됨

일시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19:00-21:00

장소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

참여인원

150명



기획

'이 시대 교육포럼'에서 빈즈 후쿠시마(Beans Fukushima)의 와카츠키 치요 이사장과 나나우미 요시오 청년사업 코디네이터를 초청한 것은 빈즈 후쿠시마와 하자센터가 함께 진행하게 될 '후쿠시마-하자'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빈즈 후쿠시마는 후쿠시마 피해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리즈메이칸 대학 야마모토 요헤이 연구실, NPO 법인 문화학습협동네트워크와 함께 '후쿠시마-하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부등교 청소년, 히키코모리, 니트 청(소)년을 연구, 학습, 지원하는 세 주체가 후쿠시마 피해지역에서 다시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모인 것이다. 후쿠시마 피해지역의 청소년이 한국, 서울, 하자센터 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으로 올 수 있을까, 온다면 무엇을 함께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번에 준비한 '이 시대 교육포럼: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의 교육'은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한국의 대안교육현장들과 함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 그리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후쿠시마를 다녀 온 지역 퍼실리테이터 강내영 발제자가 말한 것처럼 핵사고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관심을 지속하며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극복할 힘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현재 상황이 비단 일본만의 일이 아니고 근 미래 우리에게 벌어질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후쿠시마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빈즈 후쿠시마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 듣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심하고 생태적 전환에 대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했다.

진행

"후쿠시마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강내영 발제자의 발표 제목이다. 그렇다.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주민귀환방침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후쿠시마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매우 어렵지만 살아내야 한다. 빈즈 후쿠시마의 와카츠키 치요, 나나우미 요시오 그리고 지역 퍼실리테이터 강내영, 이 세 분의 발제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위기'라는 것이다. 위기라는 한자어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의미하는데 이 위험한 사고를 계기로 이전과 같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와카츠키 치요 이사장은 사고 이전에 빈즈 후쿠시마는 부등교, 히키코모리, 니트 청소년 문제에 천착했지만 지금은 피해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나우미 요시오가 만난 청소년, 청년들 중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좌절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고 이후에 자신을 도와준 어른들을 생각하며 자신도 주변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 청소년도 있고, 원자력발전소의 문제에 관심이 생긴 이후 사고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쓴 시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다고 한다.

2012년 4월 '이 시대 교육포럼'에서 쓰지 신이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속도를 줄이고, 규모를 줄이고 단순화하면서 물질적인 성장을 멈추고 영적으로 성장할 위대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 강내영 지역 퍼실리테이터가 이와키 시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위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들이었다. 이와키 시는 후쿠시마 사고지역의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다. 물론, 정부가 이와키 시 주민들의 피난 방침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문제는 심각하다 할 수 있지만 피난을 가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찾은 자구책은 실로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사고 이후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역 에너지 자급을 고민하기 시작한 주민들은 '커뮤니티 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또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사업도 하고 있다. 강내영 발제자는 폐식용유로 움직이는 버스를 타고 이와키 지역 투어를 다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스터디 투어'를 다니는 것이다. '스터디 투어'는 에너지 자급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사업을 진화시켜 간 과정,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이와키 시 지역주민들이 하는 '스터디 투어'의 의도는 와카츠키 치요 이사장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와스레나이테 쿠다사이", "잊지 말아주세요", "Don't forget". 와카츠키 치요 이사장이 구글 번역기를 돌려 잊지 말아달라는 말을 세 가지 언어로 모두 말해야 했던 것은 후쿠시마 사고 지역 외의 사람들이 이번 핵발전소 사고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쓰리마일, 체르노빌을 잇는 것과 다름없이 물질적 성장을 위한 속도 올리기에 또 다시 말려들 것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들은 재난 속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바로 '교육'일 것입니다. 이 전환의 시기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복선 성미산학교장의 마무리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오다가 큰 재난, 재앙을 만났다. 아마도 이 커다란 위기는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난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너무 늦지 않게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전환과 연대

후쿠시마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후쿠시마 사람들은 일상 속의 선택들을 잃어가고 있지만, 살아가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행과 절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보다 더 위험해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탈핵을 선택해야만 한다. 후쿠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일본 후쿠시마에서 먼저 사고가 일어난 것일 뿐이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환한다면 또 다른 재앙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배움과 전환은 재앙이 있던 자리, 그 지역의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자리 이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이야기이다.



이 시대 교육포럼 2

청소년이 말하는 '에너지와 나의 성장 이야기'

글 / 이윤주(윤, 학교운영팀)

기획 및 진행

김희욱(히옥스, 하자작업장학교 교장)

사회

김희동(대안교육연대 대표)

발표

박정민(성미산학교 재학생), 서승현(푸른숲발도르프학교 재학생),
심원규(산티학교 재학생), 정민석, 홍인기, 김찬혁, 이호욱,
임재호(송문중학교 푸른하늘지킴이),
예서영(마루, 하자작업장학교 재학생),
와카츠키 치요(빈즈 후쿠시마 이사장),
나나우미 요시오(빈즈 후쿠시마 청년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마무리

모두가 함께 하는 '지구를 위한 기도'
(진행 : 하자작업장학교 공연팀)

개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나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 생산양식을 총체적으로 성찰해보기 시작한 대안교육/공교육 총 다섯 개 현장의 청소년들이 발표와 함께 꾸려간 시간

일시

2013년 10월 27일 일요일 10:00-12:00

장소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참여 인원

120명



기획

'이 시대 교육포럼 2: 청소년이 말하는 에너지와 나의 성장이야기'는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나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생활양식, 생산양식을 총체적으로 성찰해보기 시작한 대안교육/공교육 현장의 청소년들이 발표를 통해 꾸려간 시간이다. 생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대안학교 청소년과 교사들,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교육자 및 활동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렸고, 대안교육/공교육 다섯 개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발표에 참여했다.

최근 대안교육은 학교마다의 목표와 지향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전환'을 공동의 화두로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포럼은 지금까지 대안교육에서 시도되고 있는 생태교육, 전환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서로 다른 현장에서 겪는 문제의식과 성찰의 과정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 생태교육의 지평도를 그려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여기에 송문중학교 환경동아리 '푸른하늘지킴이'와 같이 공교육의 지형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생태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을 초대함으로써, 대안교육과 공교육을 넘어, 이 시대 '생태적 전환 교육'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하는지를 고민하고자 했다.

진행

발표는 '페차쿠차(Pechakucha)'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페차쿠차'란 일본어로 '속닥속닥'이라는 의미인데, 20개의 이미지를 준비하여, 각 이미지 당 20초 동안 소개하는 발표형식을 말한다. 올해 초, 기후변화 관련 분야의 한 시민단체에서 '에너지와 나의 성장 이야기'를 주제로 하자작업장학교의 십대들에게 페차쿠차 형식의 발표를 요청했던 것을 계기로, 생태적 전환 교육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보자는 아이디어가 이번 '이 시대 교육포럼 2'로 구체화된 것이다.

첫 발표로 포럼의 문을 연 성미산학교 박정민은 2011년 첫 생태여행을 시도해 이 기간 동안 하루에 40L의 물로만 생활하고, 전기와 가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으며, 며칠간 채식하는 저탄소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행하는 일주일 동안 조금 불편했지만 탄소배출을 눈에 띄게 줄여 뿌듯함을 느꼈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생활 속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하는 등 실천을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곧 이런저런 핑계로 엘리베이터를 다시 이용하기 시작했고, 계단을 바라볼 때만 불편한 감정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았다.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걸 알고, 여행지에서는 절제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왜 집과 일상생활 속에서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앞으로 천천히 자신의 생활 속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신도 그 답을 찾지 못하겠다, 당분간 질문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고백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푸른숲학교는 적정기술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본 경험을 발표했다. 컨테이너를 이어 붙여 만든 상급학사가 극심하게 추워서 각종 난방기구를 끌어와 겨울을 보내다가 결국 전기 누전이라는 사태를 맞은 것이 적정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한 계기였다. 대안을 찾는 여정의 첫 번째는 하자센터에서 열린 적정기술 장인들과의 햇빛 건조기 워크숍, 햇빛 조리기 워크숍에 참여한 것이다.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끼며, 쓱싹쓱싹 재료를 재단하고 연결해 건조기와 조리기를 완성시켰다. 완성한 조리기와 건조기를 활용해본 결과도 대만족이었다. 푸른숲학교는 이제 이 경험을 토대로, 나름의 실험과 연구를 거쳐 컨테이너 학사에 놓을 적정기술 난로를 만들고 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발명해가는 기술, 첨단기술의 문제점을 잡아주는 기술,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기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술을 푸른숲학교는 ‘적정기술’이라고 정의했다.

이어서 산티학교도 적정기술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산티학교는 ‘산티(평화)’라는 이름처럼 평화를 위해, 머지않아 고갈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공부하고 있다. 교내에 위치한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는 산티학교 구성원들이 자립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중 하나이다. 산티학교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강의를 들으며 느티울학교와 함께 탈핵모임을 시작했다. 어느 날 이 탈핵모임에서 깊은 산속,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사시는 할머니의 소식을 듣게 된 후, 두 학교가 힘을 합쳐 할머니의 집에 태양광 발전기와 LED 전구를 설치해 드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산티학교는 대안 에너지기술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현장답게, 태양광 판넬을 만들기 위한 셀을 붙이는 과정부터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런 실험들 뒤에는 지역 어린이날 행사 등에 참여해 대안에너지 홍보 부스 등을 통해, 핵 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자전거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태양열 조리기를 전시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승문중학교는 ‘평범한’ 일반학교지만, 환경동아리 ‘푸른하늘지킴이’의 활약으로 에너지와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현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매주 화, 목요일 방과 후에 정기 모임을 가지고 주말에는 외부활동을 하면서, 친환경 비누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환경 캠페인에 SNS 릴레이로 참여하고, ‘지구를 위한 한 시간(The Earth Hour)’ 플래시몹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후재앙을 다룬 영화를 보고 경각심을 느껴서, 친구가 환경 동아리에 가입하자고 해서, 다양한 체험이 좋아서 등 각기 다른 이유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장래 희망도 교사나 활동가로 바뀌었을 정도로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공들여 준비해서 첫 플래시몹을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동하면 힘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그 한 사람에 더한 한 사람이 되면 보탬이 되는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행복감을 느꼈다”고 한다. 곧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그곳에서도 새로운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환경을 위한 활동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었다.

마지막 발표는 하자작업장학교 재학생 마루의 발표였다. 마루는 중학교 때 시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아끼는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왜?’라는 질문은 해보지 않았다. 2011년, 중학교를 졸업한 해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것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역 주민들을 측은하게 생각하기만 했지, 핵발전소가 나의 인생과 연관되어 있다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2011년 하자작업장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너지와 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며, 탈핵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도 하고,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찾아가 핵 발전 찬성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면서, 마루는 점차 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갔다. 삶을 해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핵을 대신할 대안 에너지를 찾아보고자 햇빛건조기 등 적정기술을 배웠다. “전기는 그냥 콘센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해 무겁게 돌아볼 만큼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아졌다. 지금은 학교에서 밀양송전탑에 관련된 공부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발표 뒤에는 ‘이 시대 교육포럼 1: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의 교육’을 위해 하자센터를 방문한 빈즈 후쿠시마의 와카츠키 치요와 나나우미 요시오의 짧은 발표가 이어졌다. 핵 사고 이후 후쿠시마의 상황과 그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들의 활동을 통해 받은 자극을 어떻게 후쿠시마의 청소년들과 연결하고, 교류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후쿠시마의 청소년들에게 에너지를 주길 기대하고, 언젠가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말이다.

전환과 연대

‘이 시대 교육포럼 2: 에너지와 나의 성장 이야기’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고민과 실천, 행동과 실험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감수성을 가지는 차원에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아가는 배움의 과정, 자신의 삶을 바꾸는 다양한 실천에서 출발해 서서히 가족과 친구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과정, 문제의식이 거대하더라도 우선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실험하고 퍼뜨려나가는 실험을 ‘시작했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준 것 같다.

대안교육연대의 김희동 대표가 포럼을 열며 이야기한 것처럼, “‘지속가능성’이란 결국 세대와 세대를 잇는 시간의 연속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다음 세대로 여겨지는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었다. 이날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발표자로 참여한 청소년들과 객석에 앉아있던 청소년들이 어울려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생태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생태 이슈에 대해 나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각자가 접해본 적정기술은 어떠한지 이야기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 포럼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창의서밋의 큰 주제와 잘 맞아 있는 포럼이었다. 개막식 키노트 스피커들이 섰던 무대에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십대 청소년들이 발표자로 서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주제로 하는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마지막 날 문을 열었다.

주)

* 성미산학교: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에서, 세계적인 전환마을인 토트네스를 꿈꾸며 생태적인 협동과 자립의 마을 만들기를 주도 하고 있는 12년제 마을학교이다.

기술교과서에 나타난 원자력(핵)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기술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바꾼 일로도 잘 알려져 있다.

* 푸른숲학교: 올해 ‘흙과 바람과 태양의 학교’를 선언한 푸른숲학교는 경기도 광주 퇴촌에 자리하고 있는 12년제 발도르프학교이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아름답게 이뤄내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제는 생태적 위기의 시대적 배경을 직시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 하자작업장학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작업장이었던 하자작업장학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시대인식과 사회적 소명에 귀 기울이는 ‘크리킨디’ 학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용감하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무엇이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배움과 학습을 이뤄가려고 한다.

* 산티학교: 경북 문경의 아름다운 산자락을 배경으로 생명과 평화의 힘을 믿는 산티학교는 중고통합 6년제 기숙형학교이다. 얼마 전부터 교내에 위치한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와 함께 자립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 빈즈 후쿠시마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다시 마을로 귀환해 생업을 이어가며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고 있다. 빈즈 후쿠시마는 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비영리조직이다. 아직은 방사능 유출로 위험한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생태적 전환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 송문중학교 푸른하늘지킴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송문중학교는 ‘평범한’ 일반학교이지만, 환경동아리인 ‘푸른하늘지킴이’의 활약으로 에너지와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현장에서 ‘에너지 수호천사’의 역할을 도맡아 해오고 있다. 동아리 담당교사인 신경준 선생님이 중학교



마을장터 - 달시장

글/ 강정석(바른돌, 협력기획팀)

기획 및 진행

협력기획팀,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 방물단, 생각하는 청개구리 운영팀(교육기획팀)

개요

2011년부터 3년째 5월부터 10월까지(7월 휴지기 휴장)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를 주민들에게 알려왔던 달시장의 2013년 마지막 무대. 특히 10월의 달시장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창의서밋과 뜻을 같이해 '마을 사랑'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일시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17:00-21:00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신관 중정 등

참여 인원

약 2천여 명



기획

하자센터는 2013년까지 3년째 영등포구청의 지원을 받아 5월부터 10월까지(휴지기 7월 휴장)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대안적 마을장터 '영등포 달시장'을 주관하고 있다. 2013년 달시장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마을장터를 지향하는 목적 아래 <협력, 소비, 건강, 예술, 사랑>이라는 다섯 개의 열쇳말을 주제로 삼아 진행하였다. 10월의 주제는 '사랑'으로서 이번 창의서밋의 취지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가 펼쳐지는 실제적 장으로서의 '마을'을 강조하기로 했다. '마을사랑'이라는 세부 콘셉트를 잡고 기획한 것도 이때문이며 달무리(매달 판매, 홍보 등의 활동으로 결합하는 개인 및 팀) 역시 지역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들로 구성했다.

특히 달시장은 하자허브에 입주해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주)방물단과의 협업을 통해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방물단은 마을장터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달시장을 통해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을 널리 알리고,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는 대안적 장터, 달시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4개의 골목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베품시장 '나눔골목'
하자센터와 한국압웨이가 함께하는 창의인재 육성사업 '생각하는 청개구리' 후원으로 펼쳐지는 어린이 창의워크숍 컬렉션 '체험골목'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선보이는 유기농마켓과 맛깔스러운 먹거리가 풍성한 '먹자골목'
영등포구를 비롯해 서울 전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수공예 장터 '숨씨골목'

- 2개의 마당

다섯 가지 열쇳말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표현하는 '주제마당'
춤과 노래와 인디밴드의 공연이 어우러지는 '축제마당'

진행

특히 10월 달시장은 창의서밋의 주제에 맞춘 다양한 팀들이 참여하였다. 하자허브에 자리잡은 리사이클디자인공방(목공방)과 '무.나.사' 자전거 공방이 각각 특성을 살린 재미있는 워크숍으로 주제마당에 참여하였으며, 하자센터 바로 앞에 위치한 한양아파트 부녀회에서 송편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립마을을 실천한 사례로 잘 알려진 동작구 성대골마을을 별도로 초청, 달시장 구내에 '성대골 에너지카'를 선보이기도 했다. 성대골 에너지카는 자체 태양열 발전을 통하여 커피나 간단한 식사, 음료거리를 만들어 판매하였으며

이를 통해 달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자립을 위한 에너지 모델의 실천적인 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달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비빔밥 만들기 행사도 진행하면서 '나누면서 쌓이는' 마을의 훈훈한 정을 느끼는 자리도 마련했다.

전환

2013년 10월 달시장은 약 2,000여명의 지역 주민 및 창의서밋 참여자들이 함께 즐긴 흥겨운 마을잔치로서 올해 마지막 달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 부족함이 없었다. 3년째를 맞는 달시장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는 물론 사회적 의미까지 담은 쇼핑 아이템,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어린이 체험 섹션까지 세대를 포괄하는 풍성한 매력을 갖춰 명실상부한 영등포의 대표적인 마을장터로 자리잡았다. 또한 1회용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릇과 컵, 젓가락 세트 보증금 제도, 자전거발전기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안적 실천 경험 제공,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참여 이벤트 개설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것이 단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환경인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이미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대

2013년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달시장은 영등포 지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달시장은 더욱 지역 친화적인 마을장터로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연대를 더욱 확고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주체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손맛나는 워크숍 컬렉션

글 / 문보미(이서, 협력기획팀)

기획 및 진행

방물단

세부 프로그램

‘목화송이협동조합’의 면 생리대 만들기, ‘소소모모’의 곡식동물인형 만들기, ‘지구마을’의 헌옷으로 브로치 만들기, ‘낭만메이커’의 베틀로 팔찌 등 소품 만들기, 정보람의 이면지노트 만들기

개요

인간과 사물, 도시와 자연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살피는 손작업 그룹들을 초대해 꾸민 자리. 이면지를 활용한 노트 만들기, 베틀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곡식으로 인형 만들기, 면 생리대 만들기 등 다양한 생활기술 워크숍 부스들이 운영됨

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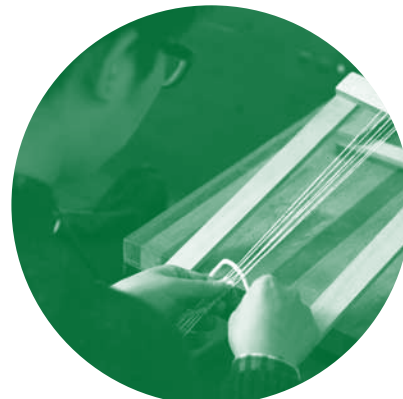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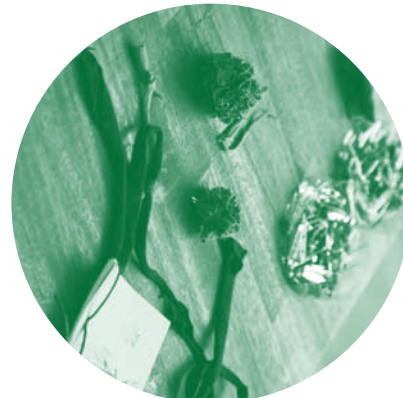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14:00-17:00

장소

하자센터 신관 1층 중정

참여 인원

200명



기획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손맛나는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다소 무거운 서밋의 주제를 참여자들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대규모 생산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고 손수 물건을 만드는 손노동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길 중 한 갈래이다. 무언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힘들게 일해야 한다. 그 일로 인해 느끼는 피로감은 또 ‘돈을 주고 뭔가를 사면서’ 풀어버린다. 악순환이다. ‘손맛나는 워크숍’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잠시 끊어보는 일상 속 실천의 자리로 기획되었다. 하자센터에 입주해 있는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 2년째 대안적 마을장터 ‘달시장’을 함께 만들어온 방물단이 여러 장터 기획 중 만난 청년 문화예술 작업자 팀들을 섭외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

진행

하자센터 신관 중정을 빙 둘러싸고 대나무대와 흰 천으로 구성된 천막을 다섯 개 설치하였다. 이 천막 하나 하나마다 각 워크숍 팀들이 자리했다. 중정은 다섯 개 천막이 딱 맞게 들어가 아늑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중앙에 적정기술 화덕이 설치되고 그 앞에 삼삼오오 둘러 앉을 수 있는 초록색 의자들이 둥글게 놓여 더욱 훈훈해졌다. 워크숍 순서를 기다리는 참여자들을 비롯해 신관을 오가는 사람들이 화덕 앞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화덕에서 갓 구워낸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은 성황을 이루었다.

전날 열린 달시장에서 배포한 리플렛을 보고 온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이 워크숍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기다리는 모습이였다. 당일 우연히 하자센터 주변을 지나던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의 참여도 많았다. 자녀들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동안 어머니들은 옆에 있거나 화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른 행사에 참여하러 왔던 사람들도 중정을 오가면서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신관 2층에서 진행된 ‘전환을 위한 움직임 : 라이프디자인캠프 쇼케이스’가 끝난 후 내려온 캠프 참여 청소년들(완두)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런 거 또 다른 데서 안 해요?”

어떤 완두는 다섯 개의 부스를 고루 돌며 참여한 후에도 아쉬움을 보였다. 개막일에 이어 이틀째 서밋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청년문화교류 방문단도 면 생리대와 베틀 소품, 헌옷 브로치 등을 만들면서 즐거워했다. 자카르타팀은 조금 늦게 워크숍에 합류했는데, 뒷정리를 하는 마지막까지 작품을 만들었다.

‘면 생리대 만들기’나 ‘베틀로 소품 만들기’ ‘곡식인형 만들기’는 완성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움직였다. 전체적으로 북적거리는 속에서도, 한 천막 한 천막을 들여다보면 여유롭게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워크숍 마감시간이 되었지만 부스는 쉽게 마무리되지 못했다. 늦게 참가한 이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 손을 움직이며 진지하게 작품을 만들었다. 재료인 헌옷이 떨어져서 일찍 부스를 마감한 소소모도 외 다른 부스들은 마감시간을 넘기면서 참여자들의 작품 완성을 기다려주었다. 화덕의 온기와 참여자들의 활기가 함께 자리한 손맛나는 워크숍은 여유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전환

이번 2013 창의서밋은 일반학교 교사, 대안학교 교사, 청소년 활동가 등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춰 기획된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 가운데 '손맛나는 워크숍'은 누구나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열린 자리로 기획되어, 전문성이 두드러졌던 전체 행사 속에서 균형을 맞추었다. 달시장과 함께 포럼과 강연이 많았던 서밋에 축제 요소를 더하는 역할도 했다.

현장 참가자가 많아서 정작 미리 신청하고 온 이들이 오래 기다려야 했던 점이 진행 상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전신청자가 먼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워크숍 진행팀에게 귀띔하긴 했지만, 현장 상황상 천막 안쪽에 마련한 자리가 이미 꽉 찬 경우 사전신청자는 밖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한다면 사전신청자를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이 워크숍을 통해 집중하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고, 바쁜 시간 속에서 여유로이 온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었다. 이 '느린 분위기'가 어찌면 많은 것의 시작일 것이다.

연대

초기 기획단계에서 '손맛나는 워크숍'은 '생활의 기술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고장난 물건을 손수 수리하고, 소비하지 않고 직접 만들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생활의 기술'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적정기술'일 것이다. 이날 함께 했던 손기술 워크숍 진행팀들과는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가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팀들은 이후 하자센터가 청소년들과 만날 때 함께 협업을 하는 파트너 그룹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모두 자신의 흥미와 일을 연결시킨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하자에 드나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기획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번 '손맛나는 워크숍 컬렉션'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체험'과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워크숍이 분리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창의적인 '놀이-체험'으로서 손기술 워크숍이 갖는 의의도 분명 있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노동하는 몸'과 '생각하는 손'을 되살리는 의미로서 기획되는 워크숍은 서로 다를 것이다. 거대한 시장 외부의 가치를 되살려내려면, 일상 소품을 만드는 이번

워크숍에서 조금 더 나아간 다른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더 메시지를 담은 기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정기술 워크숍 - 햇빛 건조기 만들기

글 /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

기획 및 진행

하자작업장학교 청년과정(무브, 쇼, 동넵), 고등과정 용접팀(신상, 미난, 선호, 훈제)

개요

태양광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제작하고 이를 퇴비화하는 워크숍으로, 참가자들이 고비용 하이테크를 구사하는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일상의 기술로서 적정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자리

일시

2013년 10월 27일 10:00~13:30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참여 인원

워크숍 참가자 19명, 진행팀 7명 등 총 26명
일반학교(경기체육중학교, 남동중학교, 진명여고, 양동초등학교),
대안학교(이우학교, 산어린이학교, 배움터길), 희망제작소,
문래예술공방, 공동육아, 울산양정작은도서관, 민들레 출판사,
동네책방 개똥이네 책놀이터, 대림산업, HMC투자 증권소 등



기획

‘적정기술 워크숍 - 햇빛 건조기 만들기’는 햇빛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제작하고 이를 퇴비화하는 워크숍으로, 참가자들이 고비용 하이테크를 구사하는 전문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일상의 기술로서 적정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은 한국의 여러 적정기술 장인 중 봉화에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자급하는 삶을 실험하는 이재열 선생께 햇빛 에너지에 관한 워크숍을 받은 적이 있다. 하자작업장학교는 도시 속 자급하는 삶과 먹거리 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나누며, 특히 원터치로 많은 것이 해결되는 시대에 ‘손의 감각을 일깨우자’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부와 실험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하자작업장학교 고등과정 수업 ‘자급의 기술’ 시간에 청년팀이 진행을 맡아 여러 적정기술 실습에서 햇빛 건조기를 제작해본 적이 있다. 적정기술 워크숍 진행 경험이 부족한 청년팀에게는 좋은 기회였고 더불어 여러 사람들과 자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건조기를 만드는 실습 시간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주제에 잘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진행

실습에 앞서 햇빛 에너지와 도시 속 자급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도시에서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지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자신이 쓰는 에너지나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는 전문적인 농부나 에너지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한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도시농업이 널리 알려지고 있고, 자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간단한 구조로 햇빛 에너지를 잘 모을 수 있게 하는 원리를 알고, 직접 제작해 보는 ‘엄두’를 내는 일을 이 워크숍에서 시도해보려 했다. 자기 삶의 방식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으나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일부 워크숍 참여자들도 이에 동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시간 안에 작업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서밋이 끝난 이후에도 남아서 완성하기도 했다.

이전부터 적정기술에 관심이 있었던 참여자들의 이해도와 단순히 햇빛 건조기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참여한 이들의 이해도는 달랐다. 강의 시간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가면서 서로 생각을 돕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대화 형식이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강의 시간이 초과해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하지만 실습 시간에도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은 좋았다. 워크숍에서는 미리 재단해놓은 부품들을 조립해 만드는 팀, 거의 마무리 직전인 건조기를 완성하는 팀, 그리고 측정부터 재단과 조립까지 하는 팀으로 이루어졌다. 건조기에 적용되는 원리는 두 가지로 하나는 비직광방식(열을 모으는 집열판에서

열기를 생산하고, 건조부는 햇빛이 직접 비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 하나는 혼합방식(직광 방식에 가까우나 집열부와 건조부가 붙어있고, 고온의 열기가 필요한 건조물을 말리는데 효과적)이다. 팀 내에는 초보자부터 손재주가 좋은 이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었다. 그래서인지 꽤 균형 잡힌 팀들이었고, 서로 묻고 답하며 작업을 진행하면서 즐거워했다. 특히 '업두'를 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처음 도구를 만져보고 시도해보는 경험이 여러 사람들에게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워크숍을 마친 후에 강의 자료를 요청한 분들도 계셨다.

전환과 연대

결과적으로 몇 가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햇빛 건조기는 2~3시간 안에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것, 자급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기술 워크숍은 좋은 발화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이야기와 기술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어 하는 몇몇 참여자들의 전환 의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워크숍의 참여자들은 다양했다. 일부 그룹은 하자작업장학교와 전부터 연을 맺었던 그룹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적정기술 워크숍을 통해 적정기술을 비롯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장들이 더 많아지기를, 또한 시민 적정기술자들이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



공정여행토크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안내서

글 / 문보미(이서, 협력기획팀)

기획 및 진행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

강연

사공영익(영, 트래블러스맵 국내여행팀장)

개요

사람,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여행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공정여행가들을 초대해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소개와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는 자리

일시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16:00-18:00

장소

하자센터 신관 103호

참여인원

39명



기획

공정여행분야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과의 협업을 통해 준비된 ‘공정여행을 위한 안내서’는 몇 가지 질문에서 출발해 기획되었다. “여행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행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당신이 알거나 모르는 사이 당신의 여행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생각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계속 그 여행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여행으로 우리 모두(여행자와 여행지의 사람과 문화와 자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여행, 즉 공정여행을 창의서밋 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진행

‘공정여행을 위한 안내서’는 크게 1,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공정여행에 대한 정의, 현 상황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했으며 2부에서는 트래블러스맵 등이 공정여행을 하게 된 이유와 현재 어떤 공정여행이 있는지 설명하고,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논의해 보았다. 강연을 맡은 사공영익(영) 트래블러스맵 국내여행팀장은 다들 스트레스 해소와 견문 확대, 기분전환 등 순기능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행이 사실은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명, 경제, 환경, 문화 등 네 가지 주제로 현재 여행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 생명 |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야생의 코끼리를 길들인다. 자유롭게 살고 있던 코끼리를 관광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관광객을 태우게 하려고 길들이는 과정이 잔인하다. 돌고래쇼, 악어쇼 등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공정여행은 동물을 이용한 관광을 하지 않으며, 반대한다. 생명을 위한 대안 - 멸종위기의 오랑우탄을 드넓은 대자연 속에서 보호하고 있는 곳, 사람들에게 학대당한 코끼리를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상처받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봉사도 하고 동물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가능한 여행이다.

- 경제 |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를 찾지만 여전히 관광에 종사하는 현지인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행지에서 호텔에 숙박하며 10,000원을 지불할 때, 호텔의 사장이 외국인이라면 10,000원중 7,000원이 사장의 나라로 간다고 한다. 경제를 위한 대안 -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숙박과 식사, 관광지를 관리하는 마을로 홈스테이 여행을 떠난다.

- 환경 |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하지만

네팔에는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아직 없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는 땅에 묻거나 태운다.

환경을 위한 대안 - 개인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곳의 규칙을 따르는 여행을 한다.

- 문화 | 바퀴벌레를 별미로 먹는 나라의 사람들도 있고,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나라의 사람들도 있다. 문화는 서로 다른 것이지 높고 낮거나 훌륭하고 미개한 것이 아니다.

문화를 위한 대안 - 현지인들과 함께 여행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체험하는 여행을 한다.

이런 상황 공유에 이어 개인이 할 수 있는 공정여행을 제안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개인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여행지에서 씻을 때도 집에서 씻듯이 물을 절약하고, 여행지의 해설사를 적극 활용하고, 여행지의 안내판을 읽는 등 사실 공정여행을 위한 실천은 어렵지 않다. “여행을 할 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자신의 양심이 뭔가 불편하다면 공정여행이 아닌 겁니다. 잠깐의 금전적, 심리적 편리 때문에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공정여행은 이제 시작이며 우리가 함께하는 여행, 함께 만드는 여행이 공정여행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시간이었다.

전환과 연대

신청자 중 여성이 90%를 차지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여행상품의 소비자층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 참여자들은 모두 프로그램 내내 주의깊게 듣는 모습이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놀라는 이들도 있었다. 현 여행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자 “아, 맞다, 여행이 이런 것이었구나. 왜 그동안 우리나라 패키지 여행 가격이 쯤는지 알겠다.”고 이야기했다. 2부에서 공정여행을 하게 된 이유와 지금 어떤 공정여행이 있는지를 설명하자 “생각보다 공정여행이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며 쉽게 이해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청년문화교류 방문단 중 10명의 청년들도 개막식이 끝난 뒤 뒤늦게 합류했다. 이들은 뒤쪽에 앉아 순차통역으로 참여했으며 강연이 끝나고 강연자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한국의 공정여행 현황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강연 후 가진 질의 응답시간에 한 관광학과 학생이 “공정여행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묻은 것에 대해 영의 대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양심을 지키며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멘붕방지협약(가칭)’ 네트워킹 파티

글 / 이충한(아키, 사회적기업 유자살롱 공동대표)

기획 및 진행

유자살롱, 문보미(이서, 협력기획팀)

발제

유자살롱(탈학교 비활동 청소년 음악치유), 기억발전소(정서적 위기 청소년 예술치유), 참새의상실(정서적 위기 청년 의상디자인 교육), 청년허브공작실(비활동 청년 쉼터), K2인터내셔널(히키코모리 자립 지원), 공공상담소(정서적 위기 청소년 대상 팟캐스트 운영)

공연

유자K(유자청소년 + K2인터내셔널), 유자사운드

다과

소풍가는 고양이

개요

정서적 위기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예술치유 및 진로지원,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한데 모여 교류하는 파티와 공연

일시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18:00-19:30

장소

하자센터 신관 1층 커뮤니티카페

참여 인원

40여 명



기획

최근 유행하는 ‘멘붕(멘탈붕괴)’이라는 신조어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단어이지만 동시에 현재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하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멘붕은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는 않다. ‘멘붕방지협약(가칭)’ 네트워크 파티는 정서적 위기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예술치유 및 진로지원,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단체들이 한데 모여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상상해보는 자리였다.

최초의 기획은 현재 힘겹게 스타트업하고 있는 소셜벤처 ‘참새의상실’에게 유무형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 즉 ‘참새의 친구들’을 모집하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좀 더 보편적인 문제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최종적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돕고자 하는 단체들의 모임이 되었다.

‘멘붕방지협약’이라는 명칭은 ‘핵확산금지조약’이나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거창한 범세계적 기구의 패러디이다. 향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다른 명칭으로 변경될 예정이지만, 일반적 국제회의에서 개최국이 계속 변경되는 것처럼 어느 한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것을 모델로 삼고 있다.

진행

네트워킹 파티는 유자K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유자살롱의 청소년 세 명과 K2인터내셔널의 스태프 보리 상이 함께한 공연에서는 한국 노래와 일본 노래가 한 곡씩 번갈아 연주되며 파티 분위기를 돋우어 주었다.

발제 시간은 발표자 모두에게 ‘5분’이라는 시간만 주어졌을 뿐 자유로운 형식과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가나다 순으로 발표 순서가 정해져 공공상담소가 첫 주자로 나섰다. 이승욱 소장이 나와 상담을 공공재화하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던 공공상담소 팟캐스트를 소개해주었고 이후 진행할 청소년 공공상담소에 관한 광고도 덧붙여 주었다. 마침 청소년 공공상담소는 하자센터의 연금술사 프로젝트 1기인 ‘영’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기억발전소. 전미정 대표가 최근 진행 중인 정서적 위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꿈꾸는 기억조각보’에 대해 설명했다. 기억발전소 멤버들 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디 뮤지션 문구와 임상심리전문가 레미도 함께 참석해주었다.

세 번째 순서인 유자살롱은 공연과 함께 유자살롱이 돌보고 있는 ‘무중력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다음으로는 청년허브 공작실에서 외부 활동과 동기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작실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허브 공작실 프로젝트는 참새의상실과 유자살롱, 공공발전소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유일한 일본 참가단체였던 K2인터내셔널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히키코모리 지원 사회적기업으로서, 현재 합정동에 한국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타코야키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교육에 참여하느라 늦게 도착한
참새의상실의 대표 참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무중력 청년들이 독립생활자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는 참새의상실의 비전을 또박또박 공유해 주었다.
참여한 이들의 질문과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공식 행사는 끝났고, ‘멘봉방지협약
네트워크’ 모임은 뒤풀이로 이어져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전환

사실 ‘멘봉방지협약 네트워크’는 뚜렷한 아젠다를 중심에 두는 모임이 아닌 만큼,
다들 필요를 느끼고는 있었으나 첫 번째 모임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전환과 연대의 장’을 모색하는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서 모임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모두들 흔쾌히 참석해주었다. 하자센터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첫 걸음을 떼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지 모를 일이다
모든 사회혁신가들이 자기 눈앞의 거대한 과제들 앞에 소진되어가는 요즘, 이런
가볍고도 진중한 모임을 통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은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이
네트워크는 뚜렷하지 않은 목적을 지니고 서로 소소하게 온기를 보태는 모임이 될
것이다.

연대

연대의 시작은 얼굴을 마주하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곤란함에 대해 듣는 것이다.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 서로의 모습도 확인했지만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수련시설
담당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회원단체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이미
‘참새의상실’의 주도로 다음 네트워킹 파티가 기획중이며, 참새의상실에 나오는
청소년들에 의해 각 회원단체들의 이미지에 맞는 의상이 제작될 예정이다. 재미와
유머가 의미와 진중함에 힘을 보태는 방식을 지키면서, ‘멘봉방지협약 네트워크’는
지속될 것이다.



토론연극 '우리반 선옥이'

글 / 이지현(유즈, 협력기획팀)

개요

학교폭력에서 방관자의 문제를 파고드는 연극을 전문배우들이 보여주고, 관람객이 직접 극을 바꿔보며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토론을 유도하는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의 작품 <양들의 침묵>에 서밋 참가자들을 초대한 행사

협력

사회적기업 이야기꾼의 책공연

일시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10:00-12:30

장소

성미산 마을극장



기획

하자센터는 이번 서밋에서 연계 사회적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여한 기업 중 하나인 '이야기꾼의 책공연'은 서밋 기간 동안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올리는 신작 <우리반 선옥이>에 참여자들을 초대해 주었다. '이야기꾼의 책공연'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공연, 이야기해결단, 토론연극 워크숍 등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야기의 힘을 발견하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회적기업이다.

특히 <우리반 선옥이>의 경우 학교폭력을 주제로 그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 방관자의 문제를 날카롭고 서늘하게 파고드는 청소년 연극으로서 교사 및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이야기꾼의 책공연'이 최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작으로 2013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작이기도 하다. 관객이 극을 바꾸기도 하고, 또 직접 극 속으로 뛰어들어 참여할 수도 있는 독특한 형식이 특징. 무대에서 일상에서도 있을 법한 삶이 리허설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토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날 연극에 온 이들은 과연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까? 학교폭력은 사라질 수 있을까? 본 공연이 끝난 후 서밋 참여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준비했다.

진행

학교폭력이라는 주제와 토론연극이라는 참신성 등으로 '이야기꾼의 책공연'이 큰 맘 먹고 내어준 30석이 무난히 찰 것으로 예상했으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이른 공연 시간 때문인지 예상을 크게 밑도는 참여자들만이 모였다.

전환과 연대

학교 현장을 정면으로 다룬 연극이라는 점에서 주로 교사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했던 이번 서밋의 특성상 큰 반응을 기대했으나 공연 시간이 오전인데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기대 이하의 결과를 가져온 케이스였다. 그러나 실제 공연은 관람하지 못했으나 관심을 보인 이들의 문의가 꾸준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자센터가 지금까지 배출한 총 9개의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교육을 주 사업 영역 중 하나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서밋이라는 하자마을의 큰 연례 무대를 통해 각자의 작품 및 성과를 선보이거나 함께 협업해 시너지를 내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등의 시도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서밋 밑줄긋기 영상

지속가능한 삶은 00이다

글 / 문보미(이서, 협력기획팀)

기획 및 진행

사회적기업 영화제작소 눈

개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주제로 펼쳐지는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각자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내는 이벤트.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게스트, 스태프, 참여자 대상의 인터뷰 촬영(10월 25~26일),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물 상영(10월 27일 폐막 쇼케이스)으로 진행됨

일시

서밋 기간 내내

장소

하자센터 전 공간

참여 인원

서밋 게스트 및 스태프, 참여자 등 40여 명



기획

사회적기업 영화제작소 눈이 참여한 ‘창의서밋 밑줄긋기 영상’은 이번 서밋의 주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에 맞춰 ‘지속가능한 삶은 00이다’라는 문장을 참여자들에게 제안하여, 다양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담아냈다. 인터뷰 대상은 국내외 강연 및 발제자, 하자센터 스태프, 외부 참여자 등 폭넓게 잡았으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0월 25일 개막식에서 서밋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촬영에 대한 사전 홍보가 이뤄졌다.

촬영 시에는 창의서밋 사진 이미지와 ‘지속가능한 삶은 00이다’ 등 인터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담은 제안용 피켓을 준비해 원활한 진행을 돕기로 했다. 또 촬영팀은 3인 2개조로 나뉘어 서밋 진행에 따른 섹션과 공간을 고려해 동선을 짰다. 2개 조의 역할 구성은 피켓 담당자 1인과 인터뷰 진행자 1인, 촬영자 1인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인터뷰 촬영 시에는 대상자의 성 및 연령, 직업 등이 고른 분포를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해 구성했다.

진행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본격적인 촬영을 진행했다. 해외 게스트인 수잔 블룸(Susan Blum)과 데니스 릿키(Dennis Littky)의 인터뷰로 스타트해 40여 명을 촬영했으며 각각의 촬영과 동시에 편집과 자막 작업을 진행했다. 이 결과 10월 27일 폐막 쇼케이스에 맞춰 ‘밑줄긋기 영상’을 상영할 수 있었다.

전환과 연대

인터뷰 촬영하면서 두드러졌던 특징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지속가능한 삶은 00이다’라는 질문 자체를 대체로 어려워했다는 점이다. 서밋의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해 참여한 이들이라고 해도 지속가능성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판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인터뷰에 응했다가도 ‘도저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인터뷰를 끝내지 못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꽤 많았다. 한 십대 유학생의 경우는 끝까지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속가능한 삶이란 지켜울 뿐’이라고 긴 고민 끝에 답하기도 했다.

모순적인 것은 이렇듯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어려워했던 응답자들의 ‘00’에 대한 답변이 상투적이고 비슷비슷했다는 것. 결국 이런 상황에 대한 ‘자구책’으로 10월 26일에는 일종의 답변 가이드를 만들어 적당한 답변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들을 위해 다른 이들이 했던 답변들의 예를 제시해 주기도 했다. 오히려 어린이들과 외국 게스트들이 엉뚱할 만큼 참신한 답변을 들려주어 이채를 띠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Transition and Solidarity for sustainable life

Handwritten notes in Korean on lined paper, including a table with columns and rows of text, and some circled words.



편집

이지현

디자인

여혜진

인쇄·제본

문덕인쇄

펴낸 곳

하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02-2677-9200

www.haja.net

<http://jagongong.net>

 2013 서울청소년창의서밋
SEOUL YOUTH CREATIVITY SUMMIT & FESTIVAL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Transition and Solidarity for sustainable life on earth